

## 캐피털 총부채 80조... 유동성 '적신호'

(국내 주요 25개사)

**업황부진 여파 신용등급 하락 차환발행 난항에 빚사상 최고 절반 가까이 1년 이내 만기 하반기 자금조달 안되면 위기**

최근 업황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캐피털(할부금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올해 하반기 자금조달 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의 유동성 위기는 심화될 전망이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25개 캐피털사의 총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8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77조 원과 견주면 3개월 만에 3.9% 늘어난 수치다. 2008년 말과 비교하면 1.8배 늘었다.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 25개 캐피털사의 총차입부채에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비중은 올해 1분기 말 45%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46%) 수준만큼 악화됐다.

캐피털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진 것은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캐피털사의 총 부채 중 70%는 회사채가 차지한다. 신용등급 하락과 업황 악화로 캐피털사의 회사채 차환율이 낮아지면 이들 회사의 단기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25개 캐피털사의 회사채 가중 평균 잔존 만기(듀레이션, Duration)는 1.84년으로 2011년 2.03년에 비해 0.19년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캐피털사는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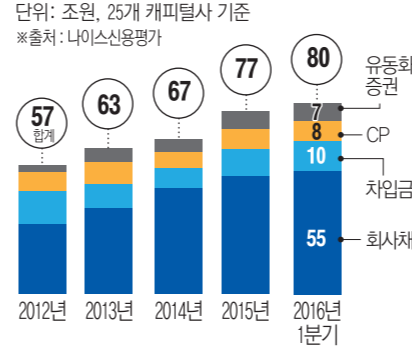
보다는 발행이 쉬운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전사(카드사·할부사)의 올해 1-3월 ABS 발행금액은 4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8%(1조2000억 원) 뛰었다. 롯데캐피탈, 산은캐피탈, KT캐피탈이 올해 ABS 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회사채보다 만기가 짧은 ABS는 발행 회사의 매출채권, 여전채 등을 담보로 한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디젤 연비

조작으로 폭스바겐, 아우디의 차량 대부분이 판매 중지되면서 폭스바겐과 이년설의 재무 안정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A+인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아주캐피탈은 최근 한국지엠과의 딜러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 현안과 국내 경제 성장률도 캐피털사에 우호적이지 않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캐피털사 총차입부채 구성 추이



### 짜릿한 '도심 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도심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016 슬라이드 더 시티'는 세계 200개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도심 한강공원에서는 높이 10m, 길이 150m에 달하는 워터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 회생 or 법정관리... 한진해운 '운명의 한 주'

**용선료 인하·선박금융 유예 협상결과 이면주 채권단 보고 '최소 5000억 그룹지원이 열쇠'**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진해운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1일 한진해운 측은 외국 선주들과 벌이고 있는 용선료(선박 임차료) 인하 협상과 선박금융 유예 결과를 채권단에 보고할 예정이다.

용선료 협상과 선박금융 협상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부족한 자금의 규모가 커 그룹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채권단은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실패 시 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두 협상에 성공할 경우 그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주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관련 최종 협상안을 논의했다.

용선료 인하분에 대한 손실보전 항목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좁혀졌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들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은 7월 29일이었지만, 선주들은 27일까지도 용선료 인하 관련 최종 사인을 하지 않았다"며 "용선료 협상 결과는 오늘(1일)

산에 보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금융 협상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채권단 관계자는 "선박금융의 경우 가시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 한진해운 측에서 산에 잘될 것이라고 알리는 것이 전부"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와 함께 선박금융 유예까지 모두 성공하면 부족자금은 5000억~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채권단은 조양호 회장이 협상 결과를 보고 그룹 지원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

## 만리장성 벽에 부딪힌 삼성전자·현대차 '코리아 빅2'

**현대·기아차 중 점유율 7.3% 중기업 약진에 2년새 1.7%P↓**

**중국업체 스마트폰 1-3위 독식 삼성전자도 시장 지배력 약화**

국내 대표 수출기업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중국 성장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자체 경쟁력을 키운 중국 업체에 자리를 내어주며 갈수록 실 자리가 좁아지는 모습이다. 중국이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이자 소비거점인 만큼 중국 시장 지위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일 블룸버그와 차이나 오토모티브 인포메이션 네트워크(CAIN)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 각각 52만2800대(4.6%), 28만5600대(2.6%)를 판매하며 총 점유율 7.3%를 기록했다. 2014년 상반기 9.0%의 점유율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넘겼던 현대·기아차는 2년 새 합계 점유율이 1.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4개 반기 연속으로 점유율 하향세를 보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하반기

7.9%의 점유율을 기록, 3년 만에 점유율이 7%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현대차 반기 점유율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졌다.

대폭 향상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창안, 장청(그레이트 월), 지리, BYD(비야디) 등 중국 현지 브랜드의 급성장에 따른 것이다. 창안자동차는 올 상반기 5.6%의 점유율로 현대차를 제쳤다.

문제는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세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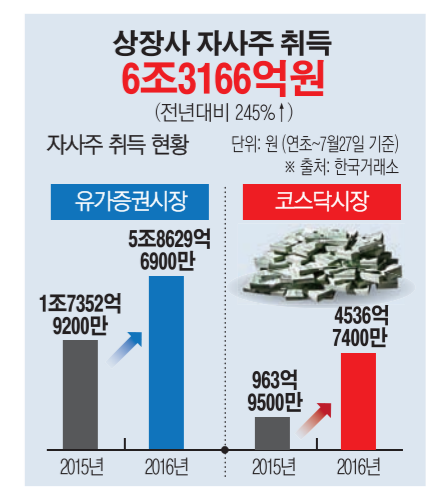
글로벌 선두 IT·전자 업체 삼성전자도 중국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프리미엄과 중저가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점유율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6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6.8%의 점유율로 5위에 그쳤다. 2년 전(14.1%) 점유율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점유율로 지난해 같은 기간(4위·9.5%) 대비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다. 같은 기간 1-3위는 오포(22.9%), 화웨이(17.4%), 비보(12.0%) 등 현지 업체가 독식했고, 애플은 9.0%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다. 김지영 기자 outy@

### 데이터 뉴스 Data News

자사주 취득액 작년보다 245% ↑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 취득을 결정(신탁취득 제외)한 상장법인 64곳이 지난달 27일까지 공시한 자사주 취득 예정 금액은 총 6조31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17억 원)보다 244.8% 급증했다.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의 추가 흐름은 시장별로 엇갈렸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비즈&비즈 ▶ 18-19  
**게임사 지배구조**  
벤처 시사점 ▶ 20  
청년희망재단 박희재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창립 55주년! IBK기업은행이 대한민국의

# “희망을 희망합니다”

기술로 앞서가는 중소기업을  
행복으로 가득찬 국민을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사국을

제13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현액

IBK기업은행이  
대한민국 경제를 빛내주신  
귀하의 업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양금융공업(주) 하정홍 회장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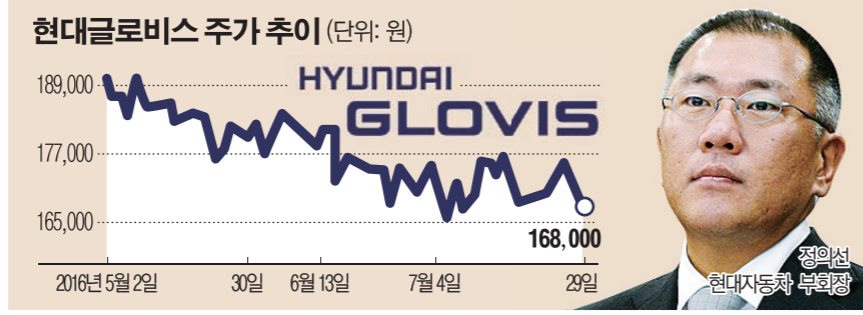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 정의선 “현대글로벌비스 부진, 신경 쓰이네”

〈현대차 부회장〉

현대·기아차 수출물량 감소로 완성차 해상운송 실적 직격탄 석 달 새 주가가 10% 넘게 빠져 경영권 승계재원 마련 ‘빨간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글로벌비스가 현대·기아차의 수출 물량 감소로 뒷사리를 맞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 일감 수혜 계열사로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원 마련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운송 물량 감소는 현대글로벌비스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직결돼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자동차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4월 29일 18만9500원을 기록한 현대글로벌비스 주가는 지난달 29일 증가 기준

16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석 달 새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현대글로벌비스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가 신형시장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현대·기아차 수출물량은 지난해 2분기보다 18% 감소해 현대글로벌비스의 완성차해상운송(PCC) 부문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현대글로벌비스는 2분기 PCC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억 원이 줄어든 323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 역시 31%의 원으로 지

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0억 원이나 감소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러시아에서는 9만7000대, 브라질에서는 7만4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13.6% 감소한 수치다.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1.9% 감소했다. 기아차 역시 러시아·중동 등 신형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수출 실적 불량 축소로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78만8561대를 생산, 판매했다.

하반기에도 신흥국들의 경기 부진

과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 현대·기아차 내부에서는 하반기 러시아(14.8%), 브라질(19.9%) 등 주요 신흥국들의 자동차 판매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비스가 올해 들어 늘어난 현대·기아차의 배선권 확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해상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최소 60%를 물류업체인 유코카캐리어스가 담당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대·기아차와의 운송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일감 보충 의무가 풀린 현대차그룹의 물량이 현대글로벌비스로 대폭 이전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배선권이 확대됐지만 현대·기아차 수출 감소로 그 효과가 퇴색되고 있다”며 “하반기 모기업 수출물량이 살아야 현대글로벌비스 마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

## ‘롯데 금고지기’ 고바야시 사임 검찰수사 피하러 꿈수?

롯데그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이 돌연 사임했다. 검찰이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바야시 사장은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다. 특히 일본 종업원주회를 움직이는 배후 인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발탁해 2004년에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로서 선임됐다. 국내 롯데 계열사 중 유일한 일본인 대

롯데캐피탈은 표면적으로는 고금리 개인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캐피탈 회사다. 그러나 실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왔다. 지난해 롯데캐피탈이 거둔 영업이익은 1217억 원(연결 기준)이다. 이 중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 국내 계열사는 물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거둔 수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25% 수준인 305억 원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고바야시 사장을 중심으로 롯데캐피탈이 일본 등 해외 금융사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일 롯데

신동빈 직접 발탁... 그룹 자금관리 핵심  
국내 롯데 계열사 대표 중 유일한 일본인  
“수사 압박에 그룹서 사임 권했을 수도”

의 자금 유통 통로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

를 통해 고바야시 사장이 사임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일본 롯데홀딩스 CFO 역할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롯데캐피탈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아우르는 핵심 비자금 통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바야시 사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전담 일본으로 급거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더 키운 바 있다.

롯데캐피탈은 한국 롯데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제외하고, 광운사(光潤社)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유일한 한국 계열사다. 광운사는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롯데캐피탈 자본 1.9%를 갖고 있다.

서는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옮길 조짐을 보이자, 이들 오너가(家)가 한국과 일본, 해외 계열사 사이의 자금 흐름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고바야시 사장을 서둘러 일본으로 출국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로 롯데그룹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고바야시 사장이 개인 판단으로 롯데캐피탈 사장 자리를 사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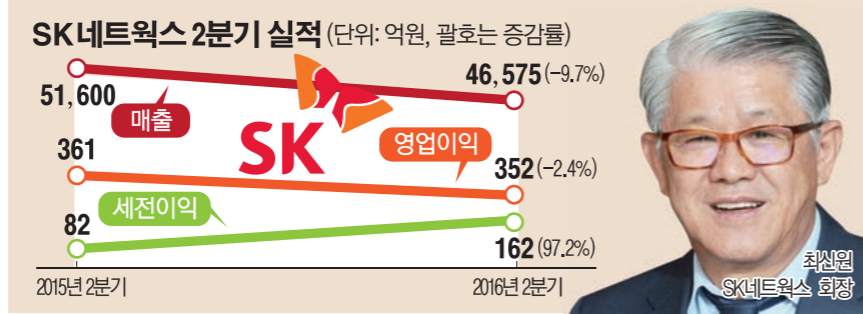
검찰도 롯데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롯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바야시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우 기자 acw@

# 몸 털 풀린 최신원, 하반기 공격경영 고삐 쥘다

〈SK네트웍스 회장〉

면세점 특허 탈락 등 악재에 2분기 매출·영업익 모두 하락  
미안마 에텐그룹 MOU 체결  
신성장동력 사업 확보 안간힘



19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원유, 원자재 가격 하락과 면세점 특허 탈락 등의 타격으로 풀이된다.

SK네트웍스는 올해 2분기 매출 4조 6575억 원, 영업이익 352억 원, 당기순이익 10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2.4%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30.2% 늘어났다.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영향 등으로 2분기 매출이

하락했다”며 “순이익의 경우 이자손익, 외환손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마케팅 부문은 2분기 매출 1조9077억 원, 영업이익 213억 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4% 늘어났다.

상사 부문은 매출 1조3178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12.9%, 31.7% 감소한 수치다. 정보통신 부문도 매출 1조590억 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9.5% 줄었다. 위커힐은 면세점 사업에서 제외된 타격으로 적자

를 봤다. 2분기 위커힐은 매출 548억 원, 영업손실은 12억 원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업부문이 고전한 가운데 자동차와 패션 부문만 실적 개선을 이뤘다. 자동차는 렌터카 보유 대수 증가와 경정비 사업 성장, 패션은 업황 회복이 원인이다. 자동차 부문은 매출 1691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49.1% 성장했다. 패션 부문도 매출 1373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2.4%, 112.5% 늘어났다.

최 회장은 3월 19년 만에 SK네트웍스 대표로 복귀한 뒤 공격적인 경영 행보

를 펼쳐왔다. 그는 6월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해외지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으며, 6월 말에는 사내 탐정급 이상 직책자 220여 명과 함께 해병대 병영훈련을 체험하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또 그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며 면세점 특허 취득 외에도 패션과 자동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표명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에는 상사 부문도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미안마의 민간 대기업 에텐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에너지 유통 부문에서는 모바일 주유서비스 ‘자몽’을 오픈했다.

최 회장의 공격경영은 하반기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SK네트웍스는 “하반기에는 상사·정보통신유통·에너지마케팅 등 기간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카라이프 및 소비재 사업 영역의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영국만  
대한민국을 여는

# 정부 3.0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 사람이 우선!

## 자동차는 차선!

##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자동차  
그러나 보행자 사고 OECD 1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자본확충 간편” 신한·하나·우리 3년간 3.8조...이자는요?

##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붐...약인가 독인가

최근 은행권에선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시장에서 흔히 ‘코코본드’로 불리는 채권으로, 바젤 3단계(바젤III)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 자본 규제 기준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

○너나할 것이 없이 코코본드 발행 = 1일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코코본드 발행 공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3조8117억 원의 코코본드가 발행됐다.

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이 각각 약 1조 원을 상회하는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이 중 국민은행만이 유일하게 코코본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은행들이 이처럼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2019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을 14%로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던 신종자본증권은 총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코코본드가 총자본으로 인정된다.

코코본드는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이자 지급 연체·자본잠식 등)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가 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주식전환 조건이라면, 코코본드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주식전환 조건으로 전환사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은행들 대부분은 코코본드 발행으로 자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은행은 코코본드 없이도 15.94%로 양호한 총자본비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코코본드를 발행한 신한은행은 15.2%로 기준보다 1.2%포인트 높았다. KEB하나은행은 2014년부터 총 1조1134억 원을 발행해 16.76%로 총자본비율이 시중은행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3년간 1조1968억 원의 코코본드를 발행했음에도 13.7%로 아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코코본드 자본인정 도입 필수 아니다 = 은행권이 자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코코본드를 발행하고 있지만, 코코본드 발행이 자본확충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은행이 경영상 큰 위험에 빠지기 전까지는 코코본드는 투자금이기보다 채무 성격을 띤다.

이자율이 연 최저 3%에서 7% 사이로 평균 4%대로 정해진다. 은행들은 매년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나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금 조달 비용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은행이 코코본드 발행 말고도 자본을 늘릴 수 있

바젤 III 규제 가이드라인서 자본 인정

은행 유사시 주식 전환 ‘역전환사채’

시중 4대은행 중 ‘국민’만 발행 안해

이자율 최고 7% 자금조달비용 쑥

“발행보다 배당 줄여 건전성 강화” 지적

문제는 비상장금융회사까지 허용

“농협 무리한 발행...이자 발목” 우려

는 것은 배당을 줄여 자본화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4대 은행들은 코코본드를 발행한 양에 육박하는 만큼의 배당을 진행했다.

발린 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 셈이다.

바젤III에선 자본 기준이 강화됐지만, 일각에선 부실화된 유럽은행들을 배려한 ‘느슨한 강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럽은행들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로 대규모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할 것을 우려해 자본 기준 강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은 국내은행들이 대규모 코코본드 발행보다 배당을 줄여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도 = 아직 코코본드 발행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시스템이 잘 발달된 시중은행들의 대응 능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비상장 금융회사까지 코코본드 발행을 인정하기로 한 점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혜를 받은 곳이 농협이다. 농협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지 오래지 않아 경쟁시스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조선·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속에서도 다른 대형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낸 것과 달리, 농협은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은행이 대규모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농협은 시중은행보다 영업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리하게 코코본드를 발행했다가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유럽은행들, 커져가는 코코본드 경고음

# 도이체뱅크 ‘이자지급 중단’ 우려...‘주가 폭락’ 사태도

국제 은행 감독 협의체인 바젤위원회가 은행권의 건전성 기준은 날로 강화되면서 부실화된 다수의 유럽은행들을 위해 다소 느슨한 자본 기준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 단계별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 기준은 바젤 3단계 논의 시점에 유럽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낸 절충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탈리아 ‘좀비은행’이 유럽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까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최고조로 치솟는 등 글로벌 은행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부실은행 자본 확충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가 1500억 유로(약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유럽은행 부실화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브렉시트 충격 완화에도 유럽은행에 대한 우려는 확대라는 보고서를 냈다.

김 연구원은 브렉시트 투표 이후 혼란에 빠졌던 세계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지

LG 硏 보고서 “코코본드도 위험요인” ECB, 디플레 해소 위해 마이너스 금리 수익성 악화 이어지며 투자자 신뢰 뚫 “바젤위, 브렉시트로 느슨한 잣대” 지적

만,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와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등 유럽은행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유럽은행들의 부실채권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코코본드 또한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회복한 미국 은행과 달리 유럽은행은 부실자산 축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9년 5.0%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에는 1.5%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재정위기를 거쳐 2012년 6.7%까지 높아졌다가 조금씩 하락했지만 지난해 5.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리스(34.7%), 이탈리아(18.0%), 아일랜드(14.9%), 포르투갈(12.8%) 등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다.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하지만 유럽 금융당국은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위험을 줄이려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폈지만,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유럽은행들이 크게 늘려온 코코본드는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다.

코코본드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상각되는 채권이다.

올해 초 도이체뱅크가 코코본드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유럽의 경제 여건이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EU 및 유로존 당국이 무리하게 재정·금융 부분의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은행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1,2차 조사를 통해 1·2 등급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배상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5월부터 정부의 1, 2차 조사를 통해 1·2 등급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분들의 고견을 경히히 듣고 관련 부분에 대해 정중히 상의드렸고, 이러한 고견을 반영한 배상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8월 1일, 지난 1·2차 조사를 통해 1·2 등급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을 발표하며, 배상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배상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www.oxy.co.kr)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02-761-2121)로 송부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원활한 배상 절차 진행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 신청 방법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당사 배상지원센터(080-699-22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저희의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이사  
아타울 라시드 사프랄



# 7월 수출 석달만에 두 자릿수 뒷걸음

<-10.2%

수출액 410억 작년보다 2.7%↓... 19개월 마이너스 행진  
조업 일수 줄고 대형 선박 인도 물량도 감소... 일시적 현상  
“자동차 업계 파업 영향”...브렉시트 등 대외여건도 한몫

수출이 다시 고꾸라졌다.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낙폭을 기록해 반등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7월에 다시 두 자릿수로 악화된 것이다. 다만 조업일수와 선박 인도 물량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일평균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보여 8월 턱어라운드에 기대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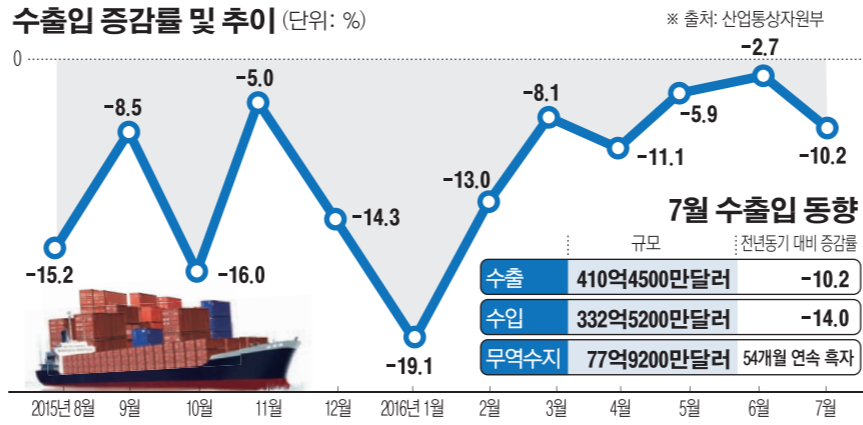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폭을 나타내던 우리나라 수출은 4월 -11.1%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감소폭으로 뒷걸음질했다.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도 19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이전 최장기

록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개월이었다.

지난 6월 1년 만에 최소 감소율인 -2.7%를 기록하며 반등을 시동을 거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출이 다시 주저앉은 것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한 데다 지난달 수출 호조를 견인했던 대형 선박 인도 물량이 줄어드는 등 일시적 요인의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지난달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도 1억5000만 달러의 수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저유가, 신용경색 위기 부진 등 부정적 대외여건도 이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에는 조업일수 감소가 6%포인트, 선박 수출 차질로



3.3%포인트 이상 수출액이 줄었다”면서 “다만 이러한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일평균 수출은 1.6% 줄어든 데 그쳐 올해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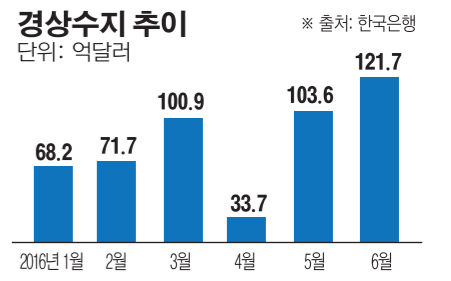
일평균 수출 증감률 역시 -4.4%로 6월(-0.6%)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 수출이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39.1%)을 기록했다. 평판디스플레이(DP),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7월 수출이 두 자릿수 낙폭으

로 악화되긴 했지만 5~6월의 회복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8월부터는 세계경제와 교역의 소폭 개선, 주력 품목 수출 단가 안정화 등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7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줄어든 332억5200만 달러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출·수입액은 작년 1월부터 19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7억9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4개월째 흑자행진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 6월 경상수지는 사상최대 흑자

121.7억달러...52개월째 흑자  
저유가에 석유제품 수입 줄어



저유가에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아울러 52개월 연속 흑자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21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52개월째 흑자 기록을 이어간 것으로 흑자 규모로는 역대 최고치다.

상품수지도 전월 107억4000만 달러 흑자에서 128억2000만 달러로 규모가 커지며, 이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2억6000만 달러로 지난 분기 9억1000만 달러에 비해 3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전월 11억4000만 달러에서 13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수출은 45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줄었고, 선적운임 포함

(FOB) 기준 수입도 32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최정태 한은국제수지팀장은 “저유가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줄었고, 중국 등 해외 직접투자 기업의 배당금의 증가로 본원소득수지까지 더해지며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통관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45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전년 동기 대비 31.5% 떨어졌고, 석유제품과 승용차는 각각 27.1%, 10.9% 하락했다.

수입의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 7.7% 감소한 338억 달러를 보였다. 원자재 수입은 14.1%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4.8% 증가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여름휴가 떠나요”



휴장 안내문

저희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계휴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휴장기간(4일간)  
2016. 07. 31(일) ~ 08. 03(수)

본격적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 2016년도 하계 휴장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이만 기자 hotoeran@

# 불황 모르는 면세점... 1년새 매출 2배 늘었다

6월 총 판매액 94%↑... 중국 관광객 대규모 방한 힘입어  
인천공항 면세점 1위는 'KT&G'... 명품 '루이비통' 앞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병주 삼우중공업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삼우중공업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금전적 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남 전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 삼우중공업 대표〉

###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측근 정병주 피의자 조사

## 산업은행·정치권으로 타깃 이동하나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남상태(66) 전 사장의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의혹에 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남 전 사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밝히는 마지막 단계로, 향후 산업은행과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일 삼우중공업 전 대표 정병주(64)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재직 시절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우중공업 지분을 고가에 매수해 회사에 19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4월 삼우중공업 지분 70%를 152억3000만 원(주당 5442원)에, 삼우중공

업 자회사인 삼우프로벨러 지분 100%를 126억 원(주당 6300원)에 각각 인수했다. 석 달 뒤 삼우중공업이 삼우프로벨러를 흡수합병해 대우조선해양은 삼우중공업 주식 392만 주(76.57%)를 보유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듬해 7월 삼우중공업 잔여 지분 120만 주(23.43%)를 190억 원에 추가 매입했다. 인수 가격은 주당 1만5855원으로 이전 인수 가격의 3배에 달했다.

남 전 사장은 20억 원대 뒤편 수수료와 5억 원대 회사돈 횡령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삼우중공업 배임 혐의 규명을 끝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정치권을 향한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길 기자 iy97@

# 2대주주 한성자동차가 지배력 이용 판매망 독점 정황 공정위, 벤츠코리아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판매망을 사실상 독점한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 조사관들은 지난달 중순께 한성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벤츠코리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성자동차는 말레이시아의 화교 재벌 레이싱중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 수입법인인 벤츠코

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다.

벤츠코리아는 한성자동차 외에도 대기업 효성 계열의 더클렉스 효성, KCC의 KCC 모터스 등 10여 개사와 딜러 계약을 맺고 있다.

지금까지 한성자동차는 국내 벤츠 전시장 중 서울 강남·서초, 부산 해운대 등 소위 '목 좋은' 판매 전시장을 대부분 확보하고 전체 벤츠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국내 딜러사들 사이에서 한성자

동차가 벤츠코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쥐고 판매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성자동차의 이 같은 영업이 실제 공정 경쟁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참고 성격의 조사"라며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작년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13조 사상 최대

### 신고세액도 2조 넘어서...피상속인수 13.7% 늘어난 5452명

지난해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은 무려 13조18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13조188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

람)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2012~2014년 각각 10조 원대 수준이었던 총 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작년 상속세 신고세액도 사상 처음으

로 2조 원을 넘어선 2조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13.7% 늘어난 5452명에 이른다. 특히, 2014년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593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1785명으로 12.1%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100억 원 초과 상속은 39.2%(167건) 늘었고, 500억 원 초과 상속은 무려 80.0%(18건)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상속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상속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상속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김정주 NXC대표 불구속 기소한 檢 넥슨 경영비리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 특임검사팀으로부터 자료 넘겨받아

9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의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넥슨 경영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진 위원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으로부터 김정주(48) NXC 대표와 넥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점 검토에 착수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김 대표의 자택과 판교 넥스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넥슨 측의 재무·법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1일 김 대표를 2조 8301억 원대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넥스코리아를 넥슨재팬에 헐값에 매각해 손실을 입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대표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를 통해 NXC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인 '엔엑스프

로퍼티스'를 저가에 사들여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와이즈키즈는 엔엑스프로퍼티스 지분 전량을 601억2100만 원에 사들였다.

김 회장은 2006년 10월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 주를 사들여 107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현물 출자해 회사에 70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XC가 보유한 넥슨 재팬 지분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역의 탈세가 이뤄졌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수사팀은 2005년 김 대표가 진 위원에게 넥슨 주식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제공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여행 경비를 제공한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11차례에 걸쳐 진 위원의 해외 여행경비 5000여만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길 기자 iy97@

## 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000만원”

### 배상안 발표...영·유아 사망·중상 배상금 10억 일괄 책정

옥시가 가슴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슴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게 배상신청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일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 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는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 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중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일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또한 옥시는 피해자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는 이달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옥시가 배상안 함의를 중용하기에 앞서, 영국 본사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KANU

유용기간 4월29일~5월29일 서울신촌 올리브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커피

## 대기업 은행대출 연체율 급등

STX조선 대규모 신규연체 발생  
6월 2.17% 작년보다 1.49%p↑

국내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2.17%로 한 달 새 0.8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0.68%)과 비교하면 1.49%포인트나 올랐다.

은행의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보통 0%대에서 1% 초반대를 오간다.

2%대로 상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대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 이유에 대해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대규모 신규 연체가 발생했다"며 "연체가 발생했던 국민유선방송투자회사(KIC)는 채무조정안 협상이 완료돼 6월말 현재 연체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는 대기업대출 연체율을 1.4%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대기업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하락했다.

국내은행 원화 대출 부문별 연체율 (단위: %)

	2015년		2016년	
	6월말	12월말	4월말	5월말
기업대출	0.76	0.78	0.87	1.04
대기업	0.68	0.92	0.86	1.36
중소기업	0.78	0.73	0.87	0.95
가계대출	0.42	0.33	0.36	0.37
주택담보대출	0.35	0.27	0.28	0.27
가계신용대출	0.61	0.48	0.57	0.61
원화대출계	0.61	0.58	0.64	0.74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1%로 5월 말보다 0.24%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0.0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4%)이 0.03%포인트 내렸고, 집단대출 연체율(0.38%)은 0.04%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8%로 역시 전월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

국내은행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0.71%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증감현황 및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경영자는 신동빈인데 심사는 신동주가 받는다?

# 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 범위 '흔선'

오늘부터 증권·카드사 등 64곳 심사 지배구조 복잡해 최대주주 도출 난항 근거규정도 모호해 단순적용 어려워

1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증권·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현대차·한화·SK 등 대기업 그룹 역시 금융당국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순환출자 구조 등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최대주주(최대출자 1인)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와 최대주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대한 예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일정 부분 진동이 예상된다.

<대주주 범위는?... "그룹 총수가 최대주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

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모두 64곳으로 집계된다.

삼성그룹 8곳(삼성화재·삼성생명 등), 현대차그룹 5곳(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한화그룹 6곳(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 등), 동부그룹 5곳(동부생명·동부증권 등),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문제는 보험·증권·카드·자산운용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의 최대주주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대기업의 특성상 순환출자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질적인 최대주주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대캐피탈의 경우 최대주주는 지분을 56.47%를 보유한 현대자동차이며, 현대차의 최대주주는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최대주주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기아차의 최대주주는 다시 현대차가 자리해 개인 최대주주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인 간 순환출자구조일 경우,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소속 집단 총수(동일인)를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로서는 이견이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의 최대출자자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화생명과 SK증권의 경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적용 어려워"... 내년 5월 확정=해당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과 심사 대상이 되는 최대주주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롯데캐피탈의 경우 최대주주가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호텔딩스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본 롯데호텔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운사이며, 광운사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호텔딩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명시됐다.

이렇게 되면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받게 돼, 사실상 롯데캐피탈을 지배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적격성 심사를 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롯데캐피탈과 롯데카드 등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롯데그룹의 출자구조 자료를 분석한 뒤 심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행령은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금융당국은 이로부터 다음 달까지 법령해석 컨설팅단을 운영하면서 관련 질의를 받아 대응 및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최대 50%까지 채무감면

가정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채테크 기회를!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국민행복기금

### 삼성생명, 노인전담 콜센터 '고객사랑 시니어서비스'

삼성생명은 이번달부터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사랑 시니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니어서비스 내용은 △전담 콜센터 운영 △고객 친화적으로 안내장 개선 △연금 지급 서비스 개선 등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말 기준, 약 71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니어서비스는 전담 콜센터 운영이다. 삼성생명은 65세 이상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사 110여 명이 고객자 응대 등 서비스를 전담토록 했다.

## 손보업계 깜짝실적... 삼성화재만 순익 '뚝'

KB, 美지점 부실 털며 순익 88%↑  
삼성, 車보험 손해율 악화... 3.2%↓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 실적은 2위권사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는 자동차·일반 보험 손해율 악화, 투자영업이익 감소 탓에 나홀로 순이익 감소를 보였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5개사 가운데 삼성화재 순이익만 지난해 상반기 5327억 원에서 올 상반기 5156억 원으로 감소(3.2%)했다. 이는 같은 기간 KB손해보험(88%), 메리츠화재(73%) 현대해상(29.1%) 동부화재(0.1%)가 순이익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성화재 순익 감소는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손해율 악화, 투자영업이익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5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됐다. 삼성화재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9%로 지난해 상반기(79.8%)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다른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언더라이팅 강화 등으로 최대 6%포인트 이상 손해율 개선을 보인 것과는 대비된다.

삼성화재도 지난 4월 개인용 보험료를 2.5% 인상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보다 자동차 사고 증가로 인한 손해액 확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삼성화재측 설명이다.

또한 삼성화재는 이미 업계 최저의 자동차보험

주요 손해보험사 상반기 실적 비교

보험사	2016년 상반기 순이익		
	지난해 상반기	올 상반기	증감률
삼성화재	5327억원	5156억원	3.2% ↓
현대해상	1540억원	1989억원	29.1% ↑
동부화재	2374억원	2376억원	0.1% ↑
KB손보	930억원	1753억원	88% ↑
메리츠화재	807억원	1396억원	73% ↑

보험사	2016년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지난해 상반기	올 상반기	증감률
삼성화재	79.80%	79.90%	0.1% ↑
현대해상	86.90%	80.90%	6%P ↓
동부화재	85.10%	82.20%	2.9%P ↓
KB손보	84.90%	81.40%	3.5%P ↓
메리츠화재	90.40%	84%	6.4%P ↓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손해율 개선 여력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삼성화재는 일반보험 손해율도 5개사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삼성화재 올 상반기 일반보험 손해율은 67.9%로 전년 동기(61.1%)보다 6.8%포인트 악화됐다.

이는 멕시코 화학공장 폭발 등 대형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됐다. 동부화재도 일반보험 손해율이 3.5%포인트 악화됐다.

반면, KB손보 등 3개사는 일반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

특히, KB손보는 지난해 2분기 대규모 손실을 야기했던 미국 지점 부실을 털어내 올 2분기 50%포인트 이상 일반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 이는 KB손보가 5개사 중 가장 큰 폭의 순이익 상승을 거두는 데 주된 영향을 미쳤다.

박규준 기자 abc84@



KB금융그룹

KB Cool~寒 환전이벤트

# 환율은 우대받고! 여행비는 지원받고!



올 여름, 아이오아이(I.O.)의 여행길엔 KB환전서비스



## Event 1 환율 우대는 KB가 좋다!

- 대상고객: KB네트워크 환전(KB외화 기프트콘 포함) 및 외화ATM기를 이용하여 외화현찰 사시는 개인 고객
- 내용: 환율우대 및 KB GIFT CARD 경품추첨 증정  
경품추첨 제외 대상 - KB네트워크환전; 영업점(가상계좌 포함)에서 신청한 고객 - 외화ATM기: 타행카드로 이용한 고객
- 환율우대: 주요통화 (USD, JPY, EUR) 80% / 기타통화 50%  
\*KB네트워크 환전과 이벤트 환율 우대율 중 고객에게 유리한 환율 적용  
\*총 17개: GBP, CAD, CHF, HKD, SEK, AUD, DKK, NOK, SGD, NZD, THB, CNY, PHP, VND, TWD, MYR, IDR
- 경품: KB GIFT CARD (5만원권) 30명

## Event 2 해외 여행은 KB가 쏜다!

- 대상고객: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외화현찰 사시는 개인 고객  
(여행자수표 포함 / 서울역 환전센터 제외)
- 내용: 여행상품권 및 KB GIFT CARD 경품추첨 증정
- 경품: 1등 해외여행 상품권 (300만원권) 1명 (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2등 해외여행 상품권 (100만원권) 5명 (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3등 KB GIFT CARD (5만원권) 70명

※이벤트 기간 - 2016. 6. 13 ~ 2016. 9. 13

※추첨(예정)일 - 2016년 9월 26일 (월)

※당첨자 발표(예정)일 - 2016년 9월 30일 (금)

※경품지급방법 - 당첨자 환전 거래 영업점으로 배송 예정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추첨은 난수 추첨 방식으로 Event (1, 2) 별 추첨기회는 각 1회에 한하며 이벤트 중복 당첨 시 상위 경품으로 증명합니다.  
 ※ 이벤트 당첨 시 제공해 드리는 해외여행 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 수령 시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2016. 10. 31(월)까지 경품 수령거부 또는 연락처 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시 당첨 무효처리 되므로 경품 수령을 위한 고객정보상의 연락처(휴대폰 등)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21호 (2016. 6. 10)



# 가을 스마트폰 삼국지... 승자는 누구?

(韓·美·中)

## 삼성 '갤노트7' 내일 공개 앞서 화웨이 '아너...' 오늘 발표 애플 '아이폰7'은 내달... LG도 'V20' 앞당겨 출시하기로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 등 스마트폰 업체들은 차별화 강점을 갖춘 신제품으로 하반기 글로벌 시장 선점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대화면 전략 제품 '갤럭시노트7' 인팩 행사를 개최한다. 상반기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7'과 더불어 새로운 일곱 번째 노트시리즈를 통해 하반기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에 또 한번 시동을 건다. 공개행사 이후 이

달 19일 글로벌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7의 넘버링을 갤럭시S7과 통일해 두 제품 간 판매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역대 최고 성능이 기대되는 갤럭시노트7의 신무기는 휴대인식과 방수·방진 기능이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대화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선호와 수요를 고려해 64GB 단일 제품으로 모델을 간소화하고 듀얼 엣지를 적용해 디자인 차별화를 이룬 점이 특징이다.

애플도 오는 9월 새로운 전략 스마트

폰 '아이폰7(가칭)'으로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에 출사표를 던진다. 아이폰7은 듀얼카메라와 방수 기능, 무선충전 등 새로운 기능이 대거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는 아이폰7과 5인치 이상 대화면 제품 '아이폰7 플러스'와 함께 '아이폰7 프로' 등 세 가지 모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아이폰 사용자 저변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화웨이는 삼성전자보다 앞서 대화면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시장 선전에 나선다. 화웨이는 1일 오후 2시 북경에서 대화면 스마트폰 '아너 노트8' 공개 행사를 연다. 6.6인치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너 노트8은 2K 해상도를 지원하며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800

만 화소 전면 카메라 및 지문인식 등 첨단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32GB 모델 1999위안(약 34만 원), 64GB 모델 2299위안(약 39만 원) 등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LG전자는 대화면 스마트폰 'V시리즈' 후속 모델을 한 달 앞당겨 9월 출시한다. 지난해 10월 첫 출시된 대화면 스마트폰 'V10'의 후속작인 'V20'은 전자에서 호평받은 비디오·오디오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동영상과 사진 촬영 등을 즐겨하는 멀티미디어 세대를 겨냥해 기존 'G시리즈' 대비 높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V시리즈를 론칭했다.

김지영 기자 gutiy@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두산이 120번째 생일을 맞았다. 박정원 회장은 31일 사내 포털에 올린 기념사에서 "또 한번의 힘찬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사진은 박정원 회장이 두산중공업 터빈공장을 방문해 신한을 원전2호기에 설치될 저압터빈모터를 살펴 보는 모습. 연합뉴스

## 국내 최古기업... 창립 120돌 맞은 두산 박정원 회장

### “재도약 위해 다시 힘 모으자”

#### 재무개선 마무리... 실적개선 주력 연료전지·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일 창립 1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고(最古) 기업인 두산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한번 힘찬 도약을 하자”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31일 창립 120주년 기념사에서 “한국 어느 기업도 빠지지 못한 120년의 역사를 일궈낸 임직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면서 “지난 4개월 간 가장 중점을 두고 살폈던 것이 ‘현장’을 챙기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직원들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제품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았다”며 “하반기에도 국내외 현장을 돌며 현장 경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모든 직원의 노력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지어 한층 단단해진 재무 기반을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는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영업 성과를 높이는 데 보다 주력하자”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 “장

기 저성장 기조가 여전하며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등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한 뒤 “두산이 걸어온 12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한 고비도 수없이 많았으나 두산은 버텼은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세계로 무대를 넓혀왔다”고 밝혔다.

1일은 매한 박승직 두산 창업주가 1896년 서울 종로 4가 배오가에 두산의 시원(始源인) ‘박승직 삼점’을 연 지 1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삼점은 1946년 박승직 창업주의 아들 박두병 초대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상호를 두산(斗山)상호로 바꿨다.

두산상회는 1950년대 무역업과 OB맥주, 1960년대 건설, 식음료, 기계산업, 언론, 문화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했고 전문 경영인 제도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두산그룹의 기틀을 다졌다.

한편 두산은 2014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 사실상 사업 첫 해인 지난해 5800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또 지난 5월에 개장한 두산면세점은 하루 매출 5억 원이 넘어서기 시작했다.

안철우 기자 acw@

## KT, 휴가철 해외 여행객 대상 신규 로밍서비스 3종



KT는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한항공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 △대한항공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 5일권 등 3가지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요금은 기존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와 동일한 하루 1만6500원이지만,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LTE' 서비스에 매일 음성로밍 수·발신 3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KT

## ‘서경배 독심’ 통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 반기 실적 ‘신기록’

브랜드 다각화·해외 진출 성과  
매출 3조4790억·영업익 7288억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했다.

1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매출 3조 4790억 원, 영업이익 7288억 원으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한 1조 4434억 원,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2406억 원을 기록했다.

부문의별 보면 국내 사업 매출은 차별화한 브랜드력 및 리테일 경쟁력 강화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조 388억 원, 영업이익은 9% 증가한 1995억 원을 달성했다. 글로벌사업 매출은 46% 성장한 4173억 원, 영업이익은 60% 증가한 490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브랜드의 다각화 전략, 신규 브랜드와 신제품 출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설화수’를 비롯한 5대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의 해외 매출이 고성장을 지속했다. 아시아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한 3879억 원을 달성했는데, ‘설화수’가 고급 백화점 중심의 매장 확산과 온라인몰(중국) 판매 호조로 고성장을 견인했다. 북미 사업은 히트상품 판매 확대로 26%의 고성장을 보였다. 유럽 사업은 신제품 출시 및 환율 효과로 매출 성장세 전환에 성공했다.

글로벌 해외 사업부에서 거둔 성과는 서경배(사진)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추진력이 한몫했다. ‘아시아 뷰티 코리아’의 가치를 내건 시 회장은 그동안 아시아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북미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면세점과 내수판매 모두 당사 기대를 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서든어택2’ 중단 선언... 업계 “온라인 게임 위기”

### PC방 10위권 게임 중국내작 8종 출시 수년 지난 구작 게임시장 모바일 중심 온라인 흥행 가능성 점차 낮아져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2’가 출시 23일 만에 서비스 종료로 결정됐다. 넥슨의 결정에 업계는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충격에 휩싸였다.

넥슨은 지난달 29일 게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 29일 서든어택2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서든어택2는 7월 출시 첫 주 PC방 평균 점유율 9위로 출발했으나, 이후 순위가 하락하며 현재 20위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당초 서든어택2는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였던 만큼, 이같은 순위 하락은 예상 밖의 사건이다. 블리자드가 만든 ‘오버워치’의 성공에 밀려 화제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일부 캐릭터의 선정성 문제가 부각되며 부정적인 인식

을 준 것도 결립들로 작용했다. 결국 넥슨은 현재의 점유율로는 운영 수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든어택2는 약 4년간 1000여명의 개발 인력이 투입됐고, 개발 비용에 3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넥슨은 개발비를 뛰어 넘는 수백억 원의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넥슨이 실패를 인정하고 누적되는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서비스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넥슨은 서든어택2로 나뉘어진 유저들을 다시 전작인 ‘서든어택’으로 복귀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게임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국내 PC방 점유율 10위권에 올라있는 게임 중 ‘오버워치’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외한 8종의 게임은 국내 게임업계가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8종의 게임은 출시한지 수년이 지난 게임들이다. 신작보다는 구작이 주류인 셈이다. 국내 게임 시장이 모바일 게임 흥행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1위 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흥행 부진을 이유로 한 달도 안 돼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른 온라인 게임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한미약품, 28종 필수 영양소 담은 종합영양제 ‘나인나인’ 출시

한미약품은 최근 종합 미네랄비타민 영양제인 ‘나인나인(사진)’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나인나인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반영한 총 28종의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일련의약품이다.

비타민D를 포함해 비타민 13종, 미네랄 12종이 함유됐으며, 생리활성 성분인

콜린타르타르산염, 오로트산수화물, 우로스데옥시콜산 3종 등이 포함돼 있어 육체피로 회복, 병중·병후 비타민 공급, 뼈 건강 등에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나인나인은 하루 한 알로 28종의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D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정품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생산하는 전 제품에 RFID를 적용해 불법 및 가짜 약, 유효기간 임박 제품 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RFID란 태그(Tag)안에 제품정보를 담아 놓고 무선주파수를 통해 이를 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나인나인은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 하루 한 번 한 정씩 복용하며, 포장단위는 100정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오늘부터 지상파 DMB 고화질 방송

이달부터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들이 선명한 HD(고화질) 방송 서비스에 나선다.

지상파 DMB특별위원회는 1일 YTN DMB, 한국 DMB, U미디어 등 3개 DMB 방송사가 고화질 방송 시스템을 구축,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KBS와 MBC, SBS는 방송 시기를 검토 중이거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화질 DMB 방송은 기존 방송보다 12배 더 선명한 방송 화면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고화질 DMB 방송을 지원하는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을 8월 중순 출시할 계획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즐길 수 있다.

지상파 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자가 늘어나고 광고 매출 증가로 경영환경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화질 DMB 방송 시청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는 올해 말 2만5000여 만대, 내년 말에는 5000여 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창균 기자 yangck@

유통맞수 롯데·신세계가 제시하는 대형마트의 미래



신동빈의 롯데마트

3세대·특화



정용진의 이마트

문화·놀이 복합

국내 유통업계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각각 차별화된 대형마트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쇼핑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공동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특화 MD(상품기획자)매장에 집중하거나 남성, 어린이 등 특정고객을 타깃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특화 중심 제3세대 대형마트'를 표방, 소비자에게 생활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구성된 신개념 점포를 제시하고 있다. 1세대 마트와 달리, 차별화된 상품 구성과 매장 표준화를 이룬 2세대 마트의 다음 버전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14일 구로점을 리뉴얼 오픈하고 특화 MD를 강화했다. 상품 중심의 매장 운영에서 벗어나 실제로 쇼핑을 하는 소비자 관점으로 상품과 매장을 편집숍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구로점에 마련된 특화 MD매장은 유아동 전문매장 '로로떼떼', 자전거 전문매장 '바이크 라운지'를 포함한 14개 매장이었다. 특히 로로떼떼는 온라인 시장에 빼앗겼던 젊은 부모를 위한 매장으로 임신부터 출산, 유아동 등 고객 생활주기를 4단계로 나눠 상품을 제안한다. 또 이 매장에는 아빠들이 쉬 수 있는 '파파존'도 마련했다.

이처럼 롯데마트 매장 곳곳에는 휴식·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2층 '룸바이홈' 매장에 전시된 소파, 가구는 고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1층 입구에 마련된 '페이지 그라운드' 매장은 고객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도 대형마트에 문화·놀이 공간을 늘리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의 야심작이라 불리는 이마트타운은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함께 입점한 신개념 대형마트다. 전문매장이 함께 운영되는 복합유통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이마트의 대표 점포로 자리잡



롯데마트 구로점 유아동 특화 MD매장 '로로떼떼'에서 고객이 쇼핑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일산 킨텍스점 이마트타운 '일렉트로 마트' 내부 전경.

롯데마트, MD 강화한 구로점 리뉴얼 오픈  
고객입장서 상품·매장 편집숍 형태로 구성  
매장 곳곳엔 소파·텃밭 등 휴식·체험공간도

신세계, 킨텍스 이마트타운 1년새 435만명  
남성·어린이 등 특정고객 타깃 차별화 전략  
평균주차 2시간...서울 대형점포 이용 2배

은 이마트타운은 일반 이마트와 달리 30~4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일렉트로 마트뿐만 아니라 키즈 카페인 '키즈올림픽', 아기수영장으로 불리는 '베이비엔젤스', 생활용품 전문 매장인 '더 라이프' 등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한 공간을 한 곳에 마련했다.

개점한 지 1년이 된 이마트타운 킨텍스점은 매출 2500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객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년간 방문 고객 수만 435만 명에 달하며, 객단가는 11만4000원 수준이다. 이마트타운 방문객의 평균 주차 시간은 2

시간으로 이는 서울지역 대형 점포 평균 이용 시간의 2배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연령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도록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베리와 도서 납품사인 초성이 함께 운영하는 북카페도 신규 오픈해 고객 체류 시간을 더 늘리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 가구 성장으로 편의점 등 근거리 쇼핑이 부활하고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성장의 한계를 맞이한 대형마트들이 체질을 바꾸고 있다"며 "쇼핑과 여유,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국내 대형마트의 미래가 유통가의 블루오션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왼쪽부터 듀이트리 클로렐라 크림, 키엘 퀴노아 아기피부 에센스, SNP 타임리스 블랙 옴 울인원 플루이드, 리페라, 멜비타 로즈 골드 리피어닝 스크럽.

클로렐라·퀴노아·캐비어·블랙베리를 화장품 원료로  
건강식품 같은 화장품?...이색성분 전쟁

피부자극 줄인 바디케어 등 출시 봇물

최근 화장품 업계가 이색 성분 전쟁을 펼치고 있다. 클로렐라, 슈퍼푸드 등 주로 건강식품으로 접해왔던 성분들은 물론, 해조류를 비롯해 해면동물 등 해양 성분들까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성분'을 따지며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듀이트리는 최근 클로렐라 성분을 함유한 '듀이트리 클로렐라 크림'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클로렐라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렐라 성장 인자와 오이, 병풀, 브로콜리 등 그린푸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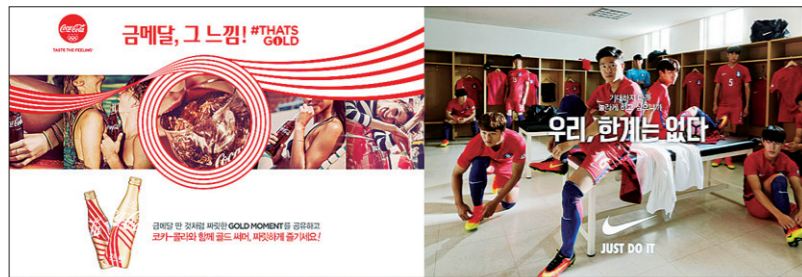
듀이트리 관계자는 "최근 피부 친화적인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표적인 건강 성분 중 하나인 클로렐라에 주목하게 됐다"며 "각종 유해 요소로 인한 피부 자극이나 민감함 등의 피부 고민이 중요한 화두인 만큼 향후에도

자극을 줄이고 유효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건강한 원료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엘은 퀴노아 성분을 접목시켰다. 최근 출시된 '키엘 퀴노아 아기피부 에센스'는 슈퍼푸드인 퀴노아 씨앗 추출물의 마이크로 펄링 효과를 담은 나이트 케어 에센스이다.

슈퍼푸드를 함유한 남성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SNP 타임리스 블랙 옴 울인원 플루이드'는 잦은 변이나 각종 외부 요인 등에 자극받아 예민해진 남성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위한 제품이다. 캐비어,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등 9가지 블랙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있다.

건강한 성분을 함유한 바디케어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멜비타 로즈골드 리피어닝 스크럽'은 오가니 아칸 나츠가루, 로즈힙 열매, 유기농 설탕 등을 함유해 피부의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 인기가. 이선애 기자 isa@



리우 올림픽 시즌을 맞아 코카콜라, 나이키 등 유통업체들이 올림픽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통가 '리우 마케팅' 시동 걸었지만...

코카콜라 '골드 에디션'출시·P&G '뽕큐맘'... 테라·지카 등 우려...매출증대 기대치 조정

2016 리우 올림픽이 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가운데, 국내 유통업체들이 '올림픽 마케팅' 여열을 마쳤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 리우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골드 에디션(250ml·알루미늄 보틀)' 한정판을 출시했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P&G는 올림픽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상 모든 어머니를 후원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뽕큐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올림픽 선수들을 키워내는 데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어머니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올림픽 동안 선수 어머니들을 올림픽 현지에 초청해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

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21개국 50여 명의 선수를 후원한다.

올림픽 공식 후원 레스토랑 맥도날드는 리우 올림픽을 기념해 '세계의 맛을 만나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세계 곳곳의 맛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신제품 5종 가운데 남미의 열정적인 맛을 가득 담은 '리우 1955버거'가 대표적이다.

유통업체가 올림픽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지만, 테라와 지카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리우 마케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매출 증대 면에서 기대치를 조정했다"며 "지난 올림픽의 경우 평균 30%가량 수익 창출을 이룬 반면, 이번 올림픽에서는 브라질의 안전 상황, 12시간의 시차 등 여러 요인으로 매출 증가폭이 10%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냉동밥시장 진출 동원F&B "내년 100억 매출"

'하루도정 신선쌀' 5종 출시

동원F&B가 냉동밥 제품 '하루도정 신선쌀' 5종을 출시하고, 내년 1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간편 냉동밥 시장에 진출한다고 1일 밝혔다.

'하루도정 신선쌀'은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햅쌀을 취사 하루 전에 도정해 사용한 제품이다. 가마솥의 원리를 적용한 공정으로 밥을 지어 밥이 고슬고슬하면서도 차진다. 이어 채소 및 해산물 등과 함께 영하 45도의 초저온에서 급속 냉동해 갓 지어낸 밥처럼 맛과 영양을 유지하게 된다. 동원F&B는 새우와 낙지를 활용한 볶음밥 메뉴뿐



동원F&B '하루도정 신선쌀' 5종.

만 아니라, 국내산 쥐나물, 강냉장, 장조림 등을 활용한 건강 비빔밥 메뉴도 함께 구성해 소비자들이 입맛에 따라 간편하고 든든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냉동밥 시장은 올 연말 400억 원 규모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

동충하초로 만든  
면역 관련  
식약처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

- ☛ 동야제약 자체 개발 및 인체적용시험 완료
- ☛ 국내 최초 동충하초 면역 관련 개별인정형 허가 취득(동충하초 주정추출물 1.5g/일(식약처 제 2013-16호))
- ☛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질 수 있는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 ☛ 100% 국내산 발아 현미 동충하초 원료 사용(친환경 재배)

● 고객센터 080-920-2002

동야제약 건강기능식품

# ‘삼익비치’ 재건축 ‘시평 상위권’ 격돌

〈부산 남천2구역〉

올해 부산 재건축 최대 3060가구  
광안리-광안대교 전망 등 최고 입지  
2020년 준공 목표로 시공사 선정  
포스코·대림·롯데·GS 부산시장 공략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도 참여할 듯



지난달 28일 부산시 수영구는 남천2구역(삼익비치타운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된 지 11년 만이자 올해 4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석 달 만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40~61층 12개 동 3200가구를 지어진다.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올 하반기 부산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수주전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 재건축의 상징 삼익비치타운의 재건축 사업이 11년 만에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정비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본격적인 격돌에 들어갈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시 수영구는 남천2구역(삼익비치타운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된 지 11년 만이자 올해 4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석 달 만의 결과다. 조합 측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1979년 12월 33개 동으로 준공돼 이듬해부터 입주 시작한 삼익비치타운은 총 3060가구 규모로 이달 기준 부산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재건축 단지 22곳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건설업계는 이미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해운대 엘시티와 연산 더샵, 광안리 더샵 등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포스코건설과 상반기 정비사업에서 최대 수주실적을 올린 대림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도 공을 들이고 있다. 또 부산시장 공략에 한창인 GS건설을 비롯해 시공평가 능력순위 10위권 내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도 참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익비치타운이 부산 재건축의 상징으로 통하는 데다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를 전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해 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이미 시

작된 하반기에 치열한 격돌이 있을 것이라는 게 분양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산 분양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맞아 대형건설사들이 많이 뛰어들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많은 데다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단지에 그동안 분양된 단지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분양가가 적용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분양분이 200여 가구가 채 되지 않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인다. 이달 기준 부산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014만 원. 3.3㎡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던 ‘연산 더샵’은 물론 1230만 원대의 ‘힐스테이트 명륜’, 1650만 원 선의 고분양가로 알려진 ‘마린시티 지어’ 등은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2500만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분양가는 30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아파트 사업 대박난 평택 분양 완판 행진 계속될까

### 최영진 대가자의 현안진단

아파트 분양시장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풍악소리는 요란하다. 여흥(餘興)인지 모르지만 청약 현장의 분위기는 흥취로 달아 있다. 경쟁률은 조금 약해졌다고 하나 분양 열기는 가시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평택을 보자. 지난해보다 청약 열기가 좀 식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고 관련 업계는 말한다. 최근 분양한 ‘지제역 동문굿모닝 시티’는 전 평형 청약이 마감됐다. 특별 공급분을 제외한 2801가구에 5523명이 접수해 평균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열기가 한창 달아올랐던 지난해 상황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그간의 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대단히 괜찮은 성과다.

물론 동문 맘시티의 분양가는 다른 브랜드보다 쏠쏠하다. 3.3㎡당 870만 원 선으로 최근 분양한 대우·GS 등보다 120만 원가량 싼 금액이다. 동문의 작은 분양가와 비교할 때 어쩌면 GS·대우 등의 분양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순이 내 청약을 완료했다는 게 신통하다. 그래서 분양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이 앞으로 내놓을 물량을 감안하면 지금 잔치상을 치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풍악을 계속 울려야 하는 처지다. 업체들이 대박의 축제를 이어가는 묘

수는 이른바 ‘P(프리미엄)의 앞 영문’ 작업이다. 분양권에 웃돈이 붙지 않고는 이들의 향연은 계속될 수 없다. 중개업소를 끌어 댄다가 허수의 청약자를 만들어 내는 청약경쟁을 높여야 P가 붙는다. 청약이 미달되면 잔치는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심한 공급 과잉 지대로 일컬어지는 평택에서도 아직 미분양을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니 잔치의 여흥은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다. 평택권에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서 주택 수요가 풍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이 출몰했는데도 분양시장은 그런대로 작동되는 편이다.

문제는 앞으로 추진될 사업장이다. 동문 맘시티의 870만 원대 착한 분양가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다. 이런 판에 아무리 유명 브랜드라고 해도 분양가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되느냐는 게 관건이다. LH공사 사업에 분양한 땅값을 생각하면 1100만~1200만

원대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점친다. 평택 여건상 엄청난 금액이다. 평택에서 사업을 추진한 업체들은 이런 외중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냈다. 3.3㎡당 50만~60만 원 선에 구입한 땅값이 지금은 400만~500만 원 선까지 올랐으니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판에 적자를 봤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앞으로도 평택의 아파트 사업 대박 행진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분양 열기가 조금씩 식고 있는 것은 아마 잔치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징후가 아니겠나.

choibak141@



##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단지명	
8/1 (월)	접수 발표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제일동경계(A-33 B/L) 2순위	
			경기	평택시	철원동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시티(A-1 B/L)
8/2 (화)	발표	경기	평택시	철원동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시티(A-2 B/L)	
			경남	창녕군	남지읍	강릉유천(공공임대B-1 B/L)
8/3 (수)	접수	경남	양산시	평산동	양산KCC스위첸 1순위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전주에코시티데시앙2차(12 B/L) 1순위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전주에코시티데시앙2차(7 B/L) 1순위
	발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정원타워2차
			대구	북구	매천동	북대구한신대우(A-1 B/L)
8/4 (목)	접수	경남	양산시	평산동	양산KCC스위첸 2순위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전주에코시티데시앙2차(12 B/L) 2순위
발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동두천지행역2차후면빌		
		인천	중구	운남동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A-15 B/L)	
8/5 (금)	오픈	경기	화성시	영선동	동탄2신도시동원로얄듀크2차(A-43 B/L)	
			광주	남구	영암동	광주효천중흥S클래스(B-1, B-3 B/L)
발표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제일동경계(A-33 B/L)		

(주1) \* =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8월 첫째 주는 여름 휴가철로 분양시장이 쉬어가는 모양새다. 전국 3개 사업장만 분양을 한다. 경남 양산시 ‘양산 KCC스위첸’ 553가구, 전북 전주시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2차’ 1351가구를 분양

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동원로얄듀크 2차(A-43 B/L)’, 광주 남구 ‘광주효천 중흥S클래스(B-1, B-3 B/L)’ 2곳에서만 오픈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부영, 동탄2 호수조망권 ‘사랑으로’ 4600가구

### 이달초 1867가구 우선 분양

부영그룹은 최근 뜨거운 분양 열기를 보이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최적의 입지로 꼽히는 ‘동탄 호수공원’을 둘러싼 A70-75 6개 블록에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46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총 4600여 가구 중 먼저 A70-72 3개 블록 1867가구에 대해 8월 초 분양을 시작한다.

산적저수지와 송방천변 주변 지역에 위치한 ‘동탄 호수공원’은 동탄2신도시 수공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주거·문화 복합시설, 수변상업시설, 주상복합, 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능들이 연계·통합된 생태경관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는 우수한 주거 환경과 호수조망권 등의 입지조건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호수공원 프리미엄 효과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세종시, 광고 신도시 등 호수공원 인근에서 분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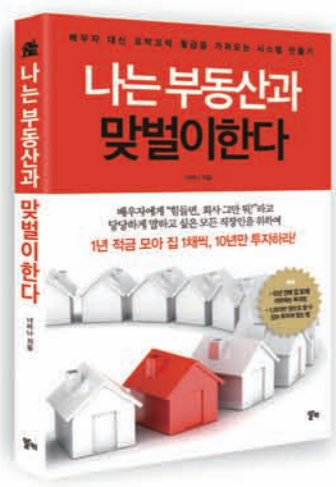
아파트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시세 또한 높게 형성돼 있다.

‘동탄2신도시 A70-72블록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총 1867가구로 A70블록은 지하 2층, 지상 15-28층, 7개 동 641가구, A71블록은 지하 2층, 지상 15-25층, 6개 동 총 520가구, A72블록은 지하 3층, 지상 15-27층, 8개 동 총 706가구다.

단지 내·외부 공간을 공원과 연계, 배치해 ‘동탄 호수공원’의 경관 조망 및 외부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하천 및 저수지에 인접한 건축물은 낮게 조성하고 뒤로 갈수록 높은 층고를 적용하는 V자형 스키아라인 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수변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 도로보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에 오산대, 한신대, 수원대, 용인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장기불황 · 저성장 · 저금리 시대, “당신에게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중년들을 위하여



배우자 대신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시스템 만들기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너바나 지음 | 256쪽  
투자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고수들의 강력 추천  
1년 적금 모아 집 1채씩, 10년만 투자하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인생 역전의 월급쟁이 부자 비결



대한민국 부동산 고수들이 먼저 읽고 실천한 바로 ‘그 책’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백완기 지음 | 252쪽  
투자 분야 주역서점 1위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 전면 개정판  
부동산투자서 시장을 역주행하는 투자계의 고전  
대한민국 서민이, 소액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마윈’ 참여 中 컨소시엄 ‘플레이티카’ 삼켰다

〈알리바바그룹 회장〉

〈시저스 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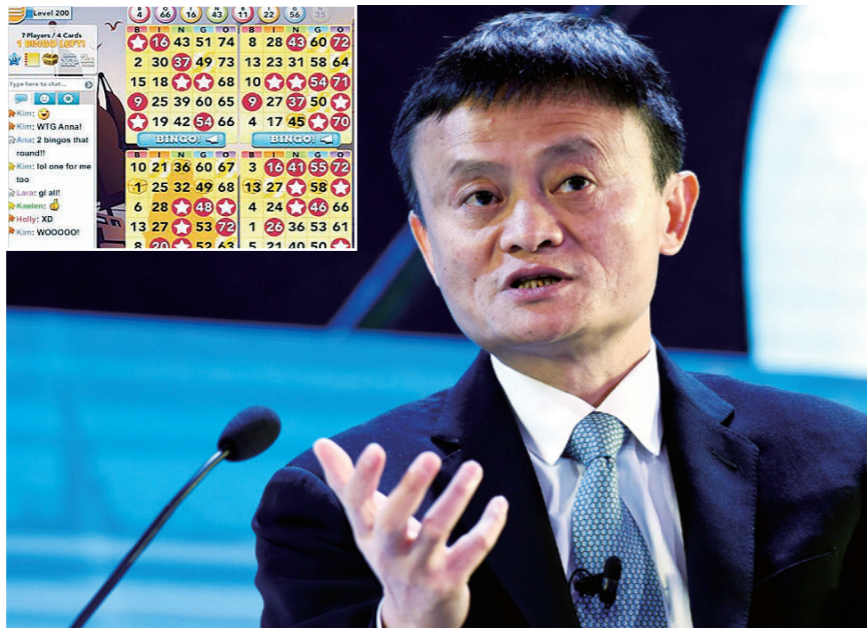
상하이아이엔트 주도 11개사 참여 CIE 플레이티카 44억 달러에 인수 빅데이터·AI 등 활용 온라인 게임 전 세계 190개국 600만명 즐겨 올 상반기 매출 4억5600만 달러

중국 ‘게임골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소재 게임업체 자이언트 네트워크테크놀로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세계 최대 카지노업체 시저스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시저스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CIE)의 온라인 게임 부문 플레이티카를 44억 달러(약 4조9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설립한 사모펀드 윈펑캐피탈과 차이나오션와이드홀딩스그룹, 차이나 민성트러스트, 허니캐피탈펀드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CIE는 ‘시저스 카지노’와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등 카지노 스타일 게임을 개발해왔다. 이번 인수에는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와 실제 돈을 배팅할 수 있는 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왼쪽)이 세운 사모펀드 윈펑캐피탈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스라엘 게임업체 플레이티카를 44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왼쪽 상단 사진은 플레이티카의 게임 ‘빙고 블리츠’, 마닐라/AP뉴스

른 온라인 게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기업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는 18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와 분쟁을 빚어왔으며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플레이티카 매각을 추진해왔다. CIE는 플레이티카를 지난 2011년에 인수했다.

컨소시엄은 이날 성명에서 “플레이티카는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 플랫폼으로 지난 5년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분석 능력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플레이티카는 포커 등의 온라인 게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명은 “인수 후에도 플레이티카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본사도 이스라엘 헤르츨리아에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플레이티카의 가상통화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당국 승인을 거쳐 올

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플레이티카는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카지노 게임을 도입했다”고 자사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0개국에서 600만 명이 매일 플레이티카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 플레이티카의 매출은 지난해 7억2500만 달러, 올해 상반기는 4억5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넷마블도 플레이티카를 4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컨소시엄에 밀려 실패로 끝나게 됐다.

중국 게임업체들이 글로벌 게임업체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가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게임즈와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 개발사인 슈퍼셀을 인수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게임업체 인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업체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유니언게임그룹의 그랜트 코버트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내 법적 이슈에도 현지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서 이미 온라인 게임시장은 최근 수년간 뚜렷하게 발전했으며 다양한 법적 난관을 극복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도쿄도 첫 여성 도지사 탄생



일본 수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지난달 31일 지지자들과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이케 씨는 이날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지지를 받고 출마한 마스다 히로야, 민진·공산·사민·생활당 등 4개 야당 후보로 출마한 도리코에 슌타로 후보를 큰 차이로 눌렀다. 고이케가 당선되면 그는 1947년 도쿄도지사를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후 아홉 번째 지사이며 여성으로는 첫 도쿄도지사가 된다.

## ‘아이폰7’ 출시 기다리나...

美 2분기 휴대폰 신규 710만명

집계 시작 15년 만에 최저 기록

미국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와 이동통신사 변경을 미루면서 휴대폰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사 BTIG의 조사에서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US, 스프린트 등 미국 4대 이동사의 지난 2분기 신규 후불폰 가입자 수가 710만 명으로, 집계기 시작된 2000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후불폰은 월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각 이동사의 실적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쓰인다.

조나선 채플린 뉴스트리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바닥에 있는 것 같다”며 “지난 분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동사들의 고객 이탈 방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풀이했다. 오는 9월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인 이른바 ‘아이폰7’ 출시를 앞두고 고객이 새 스마트폰 구입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월트 피에치크 BTIG 애널리스트는 “이동사들이 자사 고객을 유지하는데 더 나아지고 있다”며 “이는 이들이 신규



미국 휴대폰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의 한 버라이즌와이어리스 대리점. 뉴욕/AP뉴스

가입자를 놓고 이전처럼 격렬하게 경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상당수가 가족 또는 데이터 공유 플랜을 쓰고 있다”며 “살림 본인이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도 가족 중 하나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동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플린 애널리스트는 “아이폰7 출시를 기다리는 수요가 막대하다”며 “아이폰6S가 이전 모델보다 충분한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새 아이폰 수요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폰7이 크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고장난 스마트폰을 수리하면서 계속 다른 모델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애플 부품업체들로부터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새 아이폰7은 기존 모델과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대신 카메라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호 기자 baehj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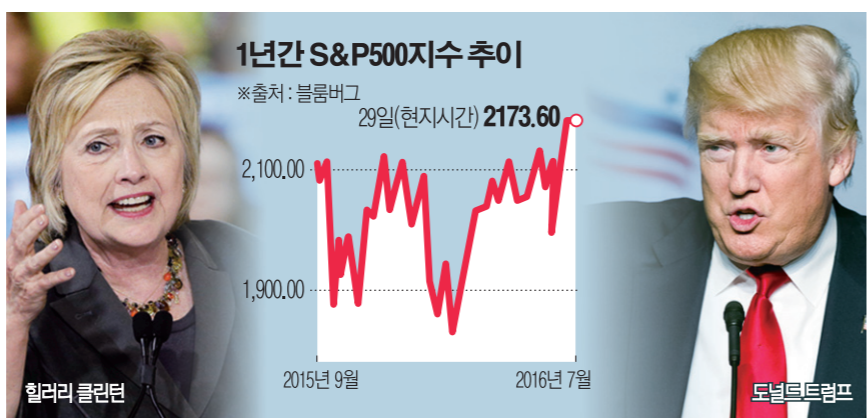
# 美 증시 오르면 클린턴, 내리면 트럼프 승리?

S&P, 1944년부터 대선 분석

유권자 향후 3개월 경제 반영

향후 3개월간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 대선 결과가 보인다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이번 미국 대선 승자를 알고 싶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CNN머니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기간에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한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샘 스토크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주식시장 전문가는 1944년 대선부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S&P500지수가 오른 경우 집권당이 승리할 확률이 82%였다고 밝혔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야당이 정



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커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주가가 펀더멘털을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S&P500지수 수익률이 현직 대통령과 야당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교체될지 여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즉 당시의 경제상황의 척도인 주가 흐름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경

제 상황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유권자들이 집권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반대로 유권자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며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게 된다고 CNN머니는 설명했다.

다만 대선 직전 3개월 주가 흐름과 대선 결과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항상 맞

았던 것은 아니었다. 1968년과 1980년에 3당 후보가 나왔을 때와 1956년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운하를 차지하기 위해 이집트를 침공했을 당시 이러한 분석은 빗나갔다. 만약 올해에도 3당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주식시장의 흐름만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유당의 게리 존슨이 출마할 경우에 10% 안팎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3 후보의 등장 여부가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1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분석의 시장권에 본격 진입하게 되며 최근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공화 양당의 정당대회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본선전이 시작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1~6%포인트 앞서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신용카드 빚 180억 달러... 美 경제 새 뇌관으로

은행 고객 잡기 서비스 경쟁

웰스파코·씨티그룹 대출 급증

2분기 성장률은 1.2%로 둔화

미국의 신용카드 빚이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뜰이나 경기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빚이 최근 3개월간 약 180억 달러(약 20조원) 불어나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최근 미국 은행들이 발표한 실적을 봐도 이러한 신용카드 빚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웰스파코의 경우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대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같은 기



간 씨티그룹은 16% 늘었다. 미국 대출은행 트러스트의 경우 전년 대비 26%나 급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계절적 조정을 거친 미국 전역 은행업계의 2분기 신용카드 대출은 7.6% 증가한 6850억 달러였다.

이처럼 신용카드 빚이 급증한 배경에

는 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항공사 마일리지와 캐시백 등 각종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며 경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부채질한 영향이다.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은행업계에서 신용카드 대출 사업은 다양한 은행사업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손

꼽힌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대출 이자의 경우 다른 종류의 신용대출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대출 이자는 12~14% 정도다. 신용카드 대출자의 체납률 역시 낮아 은행으로서의 리스크는 적고 짝퉁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카드 대출 급증에 대한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경기 회복이 둔화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빚이 급증해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 1.2%계절 조정치였다. 이는 시장전망치인 2.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도 당초 1.1%에서 0.8%로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신용손실 전망이 커지고 있어 이미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중국 M&A 열풍 이끈 ‘푸싱의 역주행’

최대 400억 위안 자산 매각 추진

채무 상환으로 신용등급상향 노력

푸싱그룹이 보유한 매각 가능 자산

2015년 말 1180억 위안



최근 수년간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열풍을 이끈 푸싱그룹이 역주행하고 있다.

푸싱은 최대 400억 위안(약 6조744억 원)에 이르는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푸싱의 자산 매각은 채무를 상환해 기업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정크)’ 등급 위로 상향하려는 의도라고 통신은 전했다.

푸싱이 지난 2010년 이후 성사시키거나 발표한 해외 M&A 규모는 150억 달러가 넘는다. 귀광창 푸싱그룹 회장은 “중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푸싱의 대표 자회사인 푸싱인태너셔널을 이끄는 량신원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와의 전날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부채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전략적인 전술적인 우리는 이 경영

방침에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푸싱에 매긴 신용등급은 투자등급에서 3단계 아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두 단계 밑이다. 량 CEO는 “정크라는 오명에 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핵심사업인 보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이를 우선순위에 놓았다”고 설명했다.

푸싱의 자산 매각은 다렌완다그룹 등 중국 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해외 M&A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정반대 행보여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량신원은 귀광창 회장, 왕첸빈 사장과 함께 푸싱그룹을 설립한 3인방이다. 귀광창이 지난해 12월 증시 혼란과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잠적했다가 나타난 이후 푸싱그룹은 리더십 분산화를 추진해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다빈치의 명언 인용해 직원들 휴가 독려한 진웅섭 금감원장 “휴식은 게으름 아닌 삶의 균형 위한 마중물”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업무 마무리하고  
“8일부터 닷새간 지방서... 비움의 미학 실천”

올해 숨들릴 틈 없이 업무를 쟁진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감원 직원들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언을 인용하며 휴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진 원장은 오는 8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진 원장은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여러 현안을 처리하느라 하루하루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는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내일을 위한 에너

지를 충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진 원장은 “가끔 떠나라. 떠나서 잠시 쉬어라. 그래야 다시 돌아와서 일할 때 더 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판단력을 잃게 되리니 라는 다빈치의 말처럼 적절한 휴식은 결코 게으름이나 멈춤이 아니며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한 삶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캉스(vacance)’의 어원을 설명하며 본인 스스로도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어로 휴가를 뜻하는 바



캉스는 ‘~로부터 자유로워지다’ 또는 ‘비우다’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몸과 마음속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 비우고 활력과 즐거움으로 재충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여름휴가는 지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보고자 한다”며 “비운다는 것은 비운 그 자리에 더 좋은 기운이, 더 맑고 밝은 에너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이슈가 많아 직원들 업무가 많았던 만큼 여름휴가를 장려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통해 직원과 소통하려는 게 진 원장의 스타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금감원은 물론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인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업무를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말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 자료를 배포한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조선-해운 업종에 이어 구조조정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올해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관심이 특히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희희 기자 jhsseo@

코오롱 2030청년 토크콘서트  
가수 에릭남이 직접 고민상담

## 지니랑 결혼한 해리포터, 19년뒤엔 어떻게 됐을까

코오롱그룹은 5일 서울지하철의 건대역 커먼그라운드에서 대학생 등 2030 청년을 초대해 ‘코오롱 헬로드림 토크콘서트: 보물찾기’를 진행한다. 코오롱 헬로드림 토크콘서트는 꿈과 능력을 키워 삶의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가수 에릭남과 레크레이션 댄싱 듀오 소심한 오빠들이 참석해 청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조언할 계획이다. 토크콘서트 참가 및 사연 접수는 코오롱그룹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지난달 31일 8번째 책 출간

셋째 막내아들 ‘세베루스’  
부모 유명세 놀린 반항심 그려



해리포터 팬들이 8번째 책이 출간된 7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한 서점에서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책을 구입한 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해리포터 시리즈 8번째 이야기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이번 책은 해리포터 책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제7권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의 19년 뒤 이야기를 다룬 연극 대본이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8번째 책인 원작자 조앤 K.롤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극작가 존 스. 연출자 존 티파니가 함께 작업했으며, 해리포터의 생일이자 롤링의 생일인 7월 31일을 기해 전 세계 서점에 배포됐다.

새 책에서 해리포터는 마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해리포터와 지니 위즐리가 결혼해 낳은 세 아이 중 덤블도어 교수와 스네이프 교수의 이름을 동시에 딴 막내아들 알버스 세베루스가 부모의 유명세에 놀려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반항하는 모습도 나와 흥미를 더한다.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8주간 이 대본을 바탕으로 한 프리뷰 공연이 진행됐으나, 관객 대부분이 비밀 준수 서약을 지켜 책 출간 전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국에서 4억5000만 권 이상이 팔렸으며, 영화 시리즈도 7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재정 기자 iij0403@

종근당,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나눔 헌혈캠페인 실시

종근당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동참했다. 종근당의 헌혈캠페인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종근당 본사를 시작으로 천안공장, 용인 효종연구소,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경보제약 약산공장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120명의 임직원들은 헌혈증 110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했다. 회사는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 1명당 1만 원의 기부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센터에 지원한다. 올해 기부금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노후물품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인사

- ◆교통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성필
- ◆교육부 △한국체육대 사무국장 심민철 △한밭대 사무국장 조일환 △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지원근무 오영석 △중앙교육연수원 하영자 △감사관실 홍수영 △기획조정실 신민규 △학교정책실 전용진 △대학정책실 김인영 △평생직업교육국 이운식
-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김기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 김진구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장 김병대
-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장정교 △나라사랑 정책과장 부이사관 임성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과장 부이사관 나치만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부이사관 구남신 △등록관리과장 서기관 황선우 △단체협력과장 서기관 김남영 △국립묘지정책과장 서기관 정병천 △국립보훈과장 서기관 이상은 △울산보훈지청장 서기관 안중영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서기관 전용진 △국립산청호국원장 서기관

- 삼재용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서기관 안기선
- ◆방위사업청 >국장급 임용 △감사관 김영신
- ◆부산시 >3급 △신공향지원본부장 김부재
- ◆코트라 이직급(차장) △테헤란무역관장 김승욱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동융합센터장 강웅 △대기환경표준센터장 이상일 △에너지소재표준센터장 백운봉 △안전측정센터장 김기복 △의료융합측정표준센터장 김용태
- ◆여성금융협회 (승진) △사업본부장/집행이사 이태은 (전보) △자율규제부장 이경원 △신기술금융부장 김갑사 실장 김태훈 △대외협력부장 백인수 △소비자보호부장 백승범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 백승학
-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원장급기연
- ◆CTS기독교TV △방송본부장 고장원 △전략기획실장 백승국 △경영본부장(직무대행) 황우중
- ◆이데일리 △산업에디터(소비자생활

- 부장 겸임) 김상현
- ◆MBC >보도국 △베이징특파원 김연석 △런던특파원 박상규
- ◆부음
- ▲신용철(SK하이닉스 수석)-용현(아베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은경(공세초 교직원)씨 모친상, 김재완(한국자산관리공사 홍보실장)씨 장모상, 김은아(성도초 교사)씨 시모상 = 29일, 대구 효경G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53-746-9310
- ▲강병수(동양인앤피 대표이사)-병호(전 제주MBC 보도국장)-병관(SAP 컨설턴트)-경희(제민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박훈석(제민일보 편집국 이사)씨 장모상 = 30일, 제주대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064-717-2900
- ▲신상범(제주도문화원 연합회장-전 중앙일보 전국부 부장)씨 부인상, 윤운(서울 안아픈세상 경희하의원 원장)-울한(㈜경희 전문이사)씨 모친상, 정지문(엘리플래닛 대표)씨 장모상 = 29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64-744-4444

동국제약 국립공원공단에  
진드기·모기 기피제 후원

동국제약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진드기·모기 기피제 ‘디펜스박스’를 후원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를 방문해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안내’ 책자와 함께 디펜스박스와 디펜스박스 제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제품은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동국제약은 2009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산행안전 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기된 국립공원 지도를 무료로 나눠주는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펼쳐왔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18번홀서 이글만 나왔더라면... 이미림, 브리티시오픈 준우승

합계 13언더파로 공동2위 그쳐  
태국 주타누간 16언더파로 1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17번홀까지 2타차.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이글이 필요했던 이미림(25·NH투자증권·사진)은 결국 태국의 강호 아리아 주타누간(21)에게 우승을 내줬다. 이미림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근교 워번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 마퀴스 코스(파72·6744야드)에서 열린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총상금 30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어 합계 13언더파 275타(62-71-69-73)로 모 마틴(미국)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주타누간은 이날 타수를 지켜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쳐 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대 우승자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 이로써 주타누간은 올 시즌 4승을 달성했다. 특히 이날 아리아보다 1살 많은 모리아 주타누간의 생일을 맞아 자매의 우승을 자축했다. 전반에 버디없이 보기만 3개를 범한 이미림은 그러나 10번홀부터 3개를 연속 버디를 골라내며 14언더파로 스코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쉽게 이길 것 같았던 주타누간은 15번홀(파4)에서 더블 보기를 범하며 타수는 1타차로 좁혀지

며 이미림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겼다. 그러나 주타누간이 17번홀(파3)에서 4.5m의 버디 퍼팅이 홀을 파고 들면서 이미림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미림은 18번홀에서 세컨드 샷이 그린을 왼쪽으로 벗어난데다 홀에 붙이고도 2퍼팅으로 보기를 범해 아쉬움을 남겼다. 장하나(24·비씨카드)는 이날 1타를 줄여 합계 9언더파 27타를 쳐 공동 5위,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과 전인지(22·하이투자증권)는 합계 8언더파 28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탁결이로 본선에 오른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 리디아 고(19·캘러웨이)는 이날 2타를 잃어 합계 1언더파 28타를 쳐 공동 40위에 그쳤다. 안성찬 기자 golfahn58@

##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한핸드블협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대한핸드블협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핸드블협회는 회장 선거에서 최태원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 총 97표 가운데 94표를 얻어 제26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제23대 핸드블



에 복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과총 사무총장에 이은우 UST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신입 사무총장에 이은우(사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은우 신입 사무총장은 공모를 거쳐 지난 22일 과총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 사무총장은 부산대를 졸업하고 미



국 콜로라도보더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과학기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국립중앙과학관장과 UST 총장을 지냈다. 지금은 UST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병근 기자 nova@

## 초대 한빛은행장 김진만 前 행장 별세

초대 한빛은행장을 지낸 김진만 전 행장이 별세했다. 향년 74세. 김진만 전 행장은 196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6년 한국상업은행에 입사한 뒤 한미은행 상무, 전무 등을 거쳐 1997년 제5대 한미은행장을 지냈다. 한미은행장 임기 중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후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1998년 7월 합병해 탄생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초대 은행장을 맡았다. 한빛은행의 초대 은행장 재임에 김진만은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망설였지만 당시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의 강력한 권유로 통합 한빛은행을 이끌게 됐으며, 조직 내부 갈등을 잘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01년 3월까지 한빛은행장으로 재직했다. 한빛은행은 예금보험공사



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면서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김 전 행장은 1982년 2월 설립 이래 26년 만에 금융전문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를 수장으로 맞이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2008년 9월부터 제1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1년 11월부터는 한국자산리츠 회장에 재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제주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5일 제주 중문골프장 내 한 건물 2층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제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이며 아직 장례 절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ikpark@

연재소설

한만수 작 사유진 그

서울 25시, 夜

제3화 누들월드 ①

누들월드는 국수전문점이다. 잔치국수나 비빔국수, 어묵국수 같은 평범한 국수가 아니다. 망고국수, 사과국수, 키위국수 등 10여 종의 과일 주재료로 한 과일 국수전문점이다.

손님들이 몰려들기에는 아직 이른 저녁 시간이다. 그런데도 50여 평의 넓은 홀은 손님들이 가득 찼다. 출입문 밖으로는 대기표를 받아 전 행렬이 10여 미터 늘어섰다.

홀에는 손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사로고가 선명한 ENG카메라를 어깨에 멘 카메라맨, 콘터를 맡아 쉬고 있는 박 피디, 한때는 개그 프로를 주름잡다가 지금은 가끔 리포터로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치는 이성근이 있다.

이성근은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며 무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가끔 얼굴을 아는 팬들이 사인을 부탁하면 거짓말처럼 얼굴을 펴고 사인을 해주거나, 같이 사진을 찍었다.

박 피디는 촬영감독과 함께 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손님들의 표정, 문밖에서 차레를 기다리고 있는 행렬이여 조리는 과정을 찍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성근 씨가 ‘국수 맛이 어때요?’라고 물으면 엄지를 치켜들고 ‘대박! 대박입니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조 감독의 눈에 근거리적으로 보이는 이성 대 여자가 보였다. 그녀 옆에 가서 앉으며 속삭였다.

“집에서 엄마가 해 주시는 맛하고 똑같아요?” 라는 말이 낯지 않을까요?”

조혜정이 피디의 가슴에 폭삭 안겨들 것처럼 바짝 붙어 앉았다. 스커트 밖으로 드러나는 넓적다리를 조 감독에게 붙이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이, 과일 국수는 이 가게가 처음이잖아요. 그냥 촬영감독님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젊은 조감독은 자신도 모르게 스커트 밖으로 드러난 조혜정의 넓적다리를 바라봤다. 때론 한 개 뺨은 다리가 썩사하다. 조혜정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얼른 얼굴을 들었다. 카메라 좀 받게 생긴 얼굴이다.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맞는지 모르죠? 나중에 편집하면 안 돼요.”

조혜정이 조감독의 허벅지 위에 손바닥을 얹으며 속삭였다.

“텔런트로 데뷔해도 되겠는데요?”

조감독은 얼른 박 피디의 동정을 살폈다.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마음속으로 ‘요것 바라?’라고 웃음을 깨물었다. 손가락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조혜정의 얼굴을 담으며 말했다.

“만약, 제 얼굴 텔레비에 안 나오면 방송사에 찾아가 주세요.”

조혜정이 피디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명함 드리지요?”

조감독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얼굴로 명함을 내밀고 일어섰다.

제법 덩치가 있어 보이는 손님 앞으로 갔다. 자장면을 곱게 먹어 서너 그릇은 충분히 먹을 만한 삼십 대다. 촬영을 주선한 송 사장이 섭의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몇 그릇 정도 드실 수 있습니까?”

“다섯 그릇은 기본입니다.”

“그럼, 이따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빈 그릇을 다섯 개 갖다 놓겠습니다. 카메라가 다가오면 한 그릇을 재빠르게 드신 다음에 큰 소리로 ‘여기, 망고국수 하나 더라고 소리를 치십시오.’”

“그 말만 하면 됩니까?”

덩치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다.

“아닙니다. 이성근 씨가 ‘몇 그릇 정도 더 드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너무 맛이 있어서 열 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대 봤자 삼반 원 아닙니까?’라며 행복한 얼굴로 배를 문지르십시오.”

누들월드는 방영시간 십 분짜리다. 조감독은 손님 다섯 명 정도에게 콘티 내용대로 연습을 시켰다.

박 피디에게 가리다가 멈추고 맛있게 국수를 먹는 팀 앞으로 갔다. 이따 카메라가 오면 맛에 흠뻑 빠진 얼굴로 먹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음에는 불러주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 번에 갈 수 있었어요?”

박 피디가 걸으며 다가오는 조감독에게 물었다.

“송 사장이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던 군요. 한 번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조감독이 손바닥을 비비며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촬영이 시작됐다. 이성근이 마이크를 들고 조 감독이 찍어준 손님 앞으로 갔다. 조혜정을 비롯하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떨지 않고 능숙하게 대답을 했다.

“이제, 사장님 순입니다.”

박 피디가 촬영감독과 함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방에는 조리가 되어 있는 국수 백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 3명의 조리원들은 열심히 국수를 삶고, 그릇에 담고 곱명을 얹느라 바쁘다.

누들월드의 창업주이자 과일 국수를 개발한 천 일만은 이따의 땅을 닦으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오는 피디를 보고 반갑게 다가갔다.

“사장님, 절대 떨 거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 삼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콘티를 모두 읽어 봤죠?”

“방송 한두 번 해 본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피디님만 믿습니다. 일반 절되면 따로 보답하겠습니다.”

천일만이 마른 짐을 삼키며 박 피디에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박 피디는 씩 웃으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저도 지금 사과국수를 먹어 봤습니다. 맛이 끝내주더군요. 사과 냄새가 원래 국수보다 진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일 국수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뭐니까?”

독일은 지금



김영희 전 주독일 대사관 공사·주세르비아 대사

독일에는 약 300만 명의 터키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절반은 독일 국적자다. 독일이 경제 붐을 일으킨 1960년대부터 이주한 터키 노동자와 가족들이다. 독일 거주 외국인 중 터키계가 단연 가장 많고, 유럽에서 터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도 독일이다. 2015년 11월 실시된 터키 총선에서 독일 거주 터키인의 60%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집권정당인 이슬람 보수당을 지지, 최종 득표율인 52%보다 높았다. 지난 7월 15일 터키 군부 쿠데타 발생과 진압 이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터키인들의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시위와 반대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터키의 관계는 특별하다. 예전 독일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독일 동맹 편에 섰다. 전쟁 패망 후 독일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붕괴되었다. 1923년 10월 29일 아타튀르크는 ‘터키 공화국’을 선포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유럽식 사회를 모델로 하는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하며 친서방 정책을 폈다. 1928년 터키는 사용하던 아랍어 문자 대신 새로운 라틴어식 터키 알파벳을 도입하고, 1930년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하였다.

2차 세계대전 시 중립을 유지하던 터키는 1945년 2월 23일 연합국 측에 가담하며 독일과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터키는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UN)의 창립멤버다. 1950년 한국전쟁 참여 후, 195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된다. 1963년 터키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연계 회원국’이 되었고, 그때부터 정식 회원 가입을 추진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문제는 지금까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지리적으로 영토의 97%는 아시아, 3%만이 유럽에 자리한 터키는 인구 약 8000만 명 중 99%가 무슬림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이 기독교 문화권인 반면 터키는 이슬람 문화 국가이다. 바로 터키의 그 지정학적, 문화적 차이를 EU 역할의 확대에 보는 견해도 물론 있다.

2004년 12월 터키는 40여 년 만에 EU 가입협상 국가로 인정받았다. 터키는 EU 가입협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2002년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EU 측은 사형제 폐지 외에도 민주주의, 법치 국가, 인권존중, 소수민족 보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특히 사이프러스) 노력 등 많은 조건을 터키에 요구했다. EU의 정식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재정, 사회, 문화, 학문 등 총 35개 분야에서 EU 수준에 도달할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식적으로 EU 가입협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EU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터키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EU로부터 48억 유로를 받았다. 그중 독일 분담금은 10억 유로였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터키에 배정된 EU 지원액은 44억5000만 유로다.

2005년 10월 3일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시작되었고, 35개 분야 중 ‘경제와 연구’ 오직 1개 분야만 협상을 마치고 1년 후 가입 협상이 중단되

쿠오 바디스, 터키?

었다. 가장 큰 이유는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가 전체 영토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터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4년 당시 그리스 군사 정부가 사이프러스의 대통령을 축출하자 터키 정부는 사이프러스 거주 터키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북부 사이프러스를 점령하고 ‘터키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5년 유럽에 시리아 등 중동지역으로부터 대량의 난민이 유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난민 대부분이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왔다. 2015년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는 110만 명에 달한다. 난민 유입 차단에 열쇠를 쥐는 나라는 터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2016년 3월 ‘EU-터키 난민협약’을 체결했다. 터키를 경유하여 불법으로 그리스에 들어오는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고, 대신 터키에 체류하는 시리아 난민을 EU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조건이다. 지중해를 거쳐 들어오는 난민들의 죽음을 막고 브로커들의 루트를 차단한다는 의도다. 현재 터키에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 270만 명 중 7만2000명을 교환 대상으로 하되, 우선 1만8000명을 EU가 받아들이고 2016년 3월 20일 이후 그리스에 불법으로 들어온 시리

아프리카 출신 불법 난민행렬은 줄지 않았다. 올해 들어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은 이미 3000 명이 넘었다.

최근 독일과 터키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1월 이스탄불에서 사원 테러사건으로 11명의 독일인이 사망했는데, 터키 정부는 이슬람국가(IS) 소행이라고 신속히 발표했으나, 독일 측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후 이스탄불 소재 독일학교 폐쇄, 터키 주재 독일 언론인들에 대한 터키 정부의 각종 제재, 독일 언론의 에르도안 대통령 비판 풍자 보도로 양국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5월 31일 독일연방하원에서 터키의 1915년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약 60만~150만 명으로 추산)에 대한 ‘아르메니아-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IS 퇴치를 위해 NATO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독일군을 방문하려는 독일 연방하원의원들의 입국을 터키 정부는 불허했다.

7월 15일 밤 발생한 터키 군부에 의한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터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 분야에 종사하는 수만 명에 대한 해고, 체포, 구금이 뒤따랐다. 수많은 학교, 연구기관, 언론이 폐쇄되고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의견이 쥐소되었다. 유럽 인권협약을 유예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초상화와 국기를 든 지지자들이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동국가 난민 유입의 통로 터키 EU 가입 등 유럽국과 실랑이 쿠데타 진압 후 막가는 에르도안 독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 난민을 1:1 방식으로 터키로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교환 대상자 1만8000명 중 독일이 1만 5000명을 받게하고 했고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포르투갈이 받을 용의를 표명했다. 송환 비용은 EU 부담이다. 터키에 대한 반대급부는 첫째, 터키의 오랜 소망인 터키인의 EU(생전 국가) 비자면제 협상 스물째, EU 가입 협상 재개 스물째, EU의 터키 체류 시리아 난민 지원금 30억 유로 조기 지불 및 2018년까지 난민 프로젝트 지원금 30억 유로 추가 지불이다.

‘EU-터키 난민협약’에 대한 EU 회원국들과 국제 인권단체, 독일 국내의 비판은 거셌다.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지난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주요한 이유로 이용되었다. 터키의 EU 가입 시 영국에 대량의 터키인 유입과 이슬람화 우려를 강조했다. 이 난민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그리스에서 터키로 송환된 시리아 불법 난민은 468명, 터키에서 EU로 넘겨진 시리아 난민은 798명(그중 294명 독일행)이다. 난민들의 발칸루트를 차단된 후 유럽에 유입하는 난민이 줄어들긴 했으나, 지중해를 건너

키며, 사형제도 재도입도 고려한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형제도 재도입에 대해 경고하고, 법치국가 파괴와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하였다. EU와 회원국들은 사형제도 재도입은 EU 가입협상을 터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준수, 인권 존중을 촉구했다. 각국의 많은 정치가들은 EU의 대타키 지원금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일부 정치가는 EU의 대타키 경제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7월 22일 독일 제2 공영 TV(ZDF)는 독일인 87%가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를 발표했다.

터키는 유럽의 난민사태 해결, IS 격퇴 문제, 서방 축과 이슬람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 등 유럽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다. 쿠데타 불발 후 현재 터키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방향이 국부인 아타튀르크가 제시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친서방 정책의 유지인지, 아니면 방향을 변경하는 것인지 유럽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7월 25일 독일 제1공영 TV(ARD)와의 인터뷰에서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사형제도를 요구하면 정치가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EU-터키 난민협약’ 준수에 대해서는 터키는 의무를 지킬 것이나 EU 측은 터키에 난민지원금 송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민, 테러, 브렉시트, 터키 사태까지 독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Quo Vadis, Turkey?

**BRAVO My Life**

COVERSTORY 친구부자,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하다

PART1. 친구, 내 남은 인생길의 동지! 유경 프라렌서 사회복지사

PART2. '나는 어떤 친구일까?' <디어 마이 프렌즈> 캐릭터로 본 친구 유형

PART3. 시니어의 우정,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아담 심리상담센터 박대영 소장

PART4. 친구, 만들기보다 정리가 먼저!

PART5. 이런 거 땀에 친구와 의(義) 상한다! 동년기자(백외섭·소현영·성미향·강신영)

PART6.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PART7. 일본 50대들의 친구 만들기 이태문 동경통신원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선라보가 만난 사람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거둬들이자”  
문주현 MDM 회장의 돈의 철학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  
‘남국동수호천사’  
주사리광동동체 이종래 목사

“꿈과 이겨 내고 100세 인생 향해 오늘도 일합니다”  
오세 현역 법무사 이종태

8월의 맛

속 시원한 메밀의 순수한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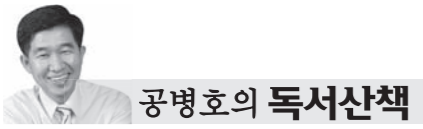
막국수는 냉면, 콩국수 등과 더불어 여름 하면 생각나는 면 요리다. 차갑게 먹는 음식인데도 도톰하고 부들부들한 메밀 면발이 입술에 닿으면 어찌든 따뜻한 것이 느껴진다. 투박한 매력에 순수함까지 더한 순 메밀 100% 막국수 맛집 ‘메밀연가’를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공병호의 독서산책

고봉만 엮음 '나이 들과 죽음에 대하여'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방법이 여러 있다. 두꺼운 역사책을 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얇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책을 읽는 사람도 있겠다. 고봉만 엮음, '나이 들과 죽음에 대하여' (책세상)는 공태뉴의 '수상록' 중에서 제목에 맞는 명언들을 뽑아서 정리한 책이다. 나이 들, 때가 있음, 부성에, 고독과 글쓰기, 목표 없는 영혼의 방황, 세 가지 교제, 가장 아름다운 삶, 철학은 죽음을 배우는 것, 죽음을 대비하는 것 등 3부 11장으로 구성됐다. "연륜이 쌓인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 절로 지혜가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공태뉴는 그런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알고 뒤지 않으면

지이듯 그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다. 갖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을 두고 벌어지는 부자 간의 갈등이다. "늙어 꼬부라져서 반쯤 죽어가는 아버지가 집 한 쪽 구석에서 재산을 혼자 움켜쥐고 자식들의 발전과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일은 옳지 않다." 그 시대에도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몫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삶 자체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공태뉴는 노년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자기를 위해 살아보자. 우리를 울아매는 강력한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즐겨봐야 한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생산을 넘어 분배 혁명이 될 것이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O2O(Online 2 Offline) 융합 기술로 초생산 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다. 초생산 혁명을 구현한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승자로, 그렇지 못한 국가는 패자로 세계는 재편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는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양극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초생산성은 과학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혁신으로 발전될 수 있는 혁신 시스템, 특히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규제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과제다. 양극화 해소 대안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4차 산업사회의 총 생산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과 같은 고급 서비스의 생산성 한계가 극복될 것이다. 인건비 문제로 해외로 생산

4차 산업혁명은 분배혁명이다

기지를 이전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3D프린터, 지능형 로봇, 산업 인터넷의 삼자장으로 속속 복귀 중이다. 21세기 최대의 생산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과제는 초생산물의 분배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 그리스 민주제는 시민의 10배에 해당되는 노예의 생산성에 의존했다. 유토피아적 미래상은 인공 지능과 로봇이 그리스 시대의 노예를 대체해주고 미래 인간은 고대 그리스인과 같은 문화적 삶을 즐기면 된다는 것이다. 획기적으로 증가한 초생산성으로 유토피아의 필요 조건은 만들어졌다. 이제 충분조건은 분배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다. 초생산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는 그 자체로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혁신은 소수가 이룩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의 과제는 초생산성의 혁신 사이클과 분배 사이클의 상호 연동에 있다. 혁신 사이클이 과학 기술과 경제의 문제라면 분배 사이클은 정치와 사회의 문제다.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부결된 300만 원 기본급 지급 제도가 나온 배경이다. 국가가 기본급 보장을 전제로 초생산 혁명에 돌입해 가자는 것이다. 초생산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극복해야 할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지

속가능한 분배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의사 결정 시스템이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대리인 문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시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의 이해 관계가 국민과 일치하지 않는다. 복잡한 미래 사회의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과거 20세기의 구조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의사결정 비용의 한계 때문에 도입되었던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그리스 시대의 직접 민주제로 돌아야 한다. 스마트 직접 민주제는 국가, 지방자치, 정당, 아파트 주민자치, 동문화 등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에서 활용 가능하다. 1단계는 우선 개별 정책의 결정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표자 선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투표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이르는 속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경쟁이 필요하다. 미래의 정당이 수행할 역할은 바로 정리된 의견을 제공하는 싱크탱크와 미디어의 역할이다. 다양한 싱크탱크와 미디어들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직접민주제가 거버넌스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 관계 조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결국 다원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직접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분배와 거버넌스의 문제다.

공태뉴 '수상록'에서 찾은 삶의 지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이다. "나는 어리석고 비생산적인 자존심과 진력나는 잔소리, 까다롭고 비사교적인 성격, 미신, 그리고 쓸모없는 부(富)에 대한 끝없는 취향 같은 것 말고도, 나는 노년에서 더 많은 시기심과 부당함과 심술됨을 발견한다." "소년은 앓을 보고 노인은 뒤로 본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노년이 가져오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호라티우스처럼 "그대는 죽음에 압박해서도 무덤 생각을 하지 않고, 대리석을 깎아 집을 짓고 있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다. 공태뉴는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노년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노년에서 발견한 위안은 노년이 내 마음 속에서 세상 형편에 대한 걱정, 재산, 지위, 학문, 건강에 관한 걱정, 나 자신에 관한 걱정 등 인생을 심란하게 만드는 여러 욕망과 번뇌를 느슨하게 했다는 것이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노년이 되더라도 젊은 날과 마찬가지로 의식이 무엇인가를 조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황과 짜증과 스트레스가 엄습하게 된다. "우리가 정신을 조이거나 다잡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은 상상력의 공허한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위는 항상 방향하는 정신을 낳는다"는 로마 시인 루카누스의 말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의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노년이 되더라도 툭툭거리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다. "사물에 부여한 성질을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죽음에 대한 공태뉴의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미리 미리 걱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리 슬퍼할 필요가 있는지, 짧은 순간에 끝날 일을 그토록 오랫동안 두려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피서용 책으로 제격이다.

오늘의 인물 8월 1일 임경업

임경업은 1594년 출생해 1646년 8월 1일 세상을 등진 조선의 명장이다. 호는 고송(孤松), 시호는 충민(忠愍). 충북 충주시(옛 평남 개천군)의 무인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24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1624년 이괄의 난을 평정해 일등공신이 됐다. 정묘호란이 나자 정북방에서 검 영변부사가 돼 백마산성과 의주성을 지켰다. 명나라 조정에 반대해 난을 일으킨 반란군을 토벌해 명나라에서도 벼슬을 받았다. 병자호란 땀 백마산성에서 청군에 대항해 싸웠으나 청군이 성을 우회해 서울로 진격하자 청군을 추격하기 위해 조정에 원병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

명·청 교체기, 淸과 대립하다 죽은 조선의 장군

병이 오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듬해 청이 명을 정벌하기에 앞서 조선에 파병을 요구하자 수군장으로 병사를 이끌고 참전했으나 오히려 명과 내응해 청의 작전을 방해했다. 그는 명과 교역도 계속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청으로 끌려갔으나 이송 도중에 도망가 명으로 망명했다. 명으로 간 그는 명군 정수가 돼 청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했다. 이후 명이 망하자 결국 청에 붙잡혔다. 청은 그에게 목숨과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회유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청도 이에 감동해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둬두기만 했다. 그러나 그의 연금 상태는 오래

가지 않았다. 조선에서 좌의정 심기원의 모반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연관됐다든 죄명으로 국내로 송환돼 고문받다가 죽은 것이다. 계속 청과 대립하다가 제대로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역적이 돼 유명을 달리한 그를 안타깝게 여겨 그에 대한 많은 설화가 전하고 있으며 '임경업전'(작자 미상)이란 소설도 나왔다. 그러나 "사대주의적 명분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졌다"는 평가(출판인 박영규)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도 있다. 그는 1697년에 복관됐다. 이은호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leeeunho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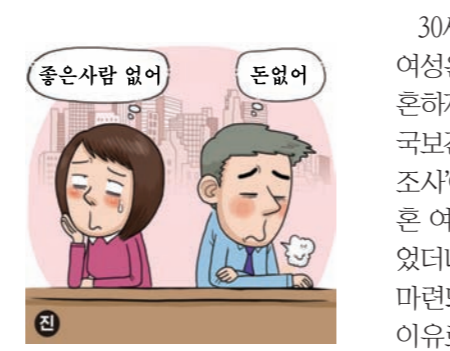
카드로 보는 세상



편의점 '1만 점포' 시대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CU가 1만106곳, GS25는 1만40곳에 달합니다. 한 번 사업에 실패했던 전직 자영업자들이나 살림하던 주부들이 편의점 창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편의점 창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데다 본사의 뒷받침이 장점이죠. 하지만 편의점 운영이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장·단점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b5JR0R

온라인 외갈와갈



결혼 안하는 이유 남녀 차이... "결국은 돈 때문이겠지"

30세 이상 미혼 남성은 경제적 문제, 미혼 여성은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30~44세 미혼 남성 446명, 미혼 여성 393명에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남성은 '소득이 낮아서'(10.9%),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8.3%)를 포함해 경제적인 이유로 분류된 6개 항목에서 모두 41.4%에

달하는 응답을 했다. 반면 여성은 '본인의 기대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32.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티즌은 "이것저것 따지면 결혼하기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긴 했다", "결혼 필요성 못 느낄 때도 있어", "경제적 이유로 결혼 못하는 슬픈 현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Advertisement for CROCODILE towels.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towel products, including a blue and white striped towel, a green towel, and a yellow towel. The text includes 'ISO 9001 인증업체', '아이타올(주)', '라인 타올', '로고자수 타올', and 'THE BEST CROCODILE OF YOUR LIFE'. At the bottom, it provides the website 'www.itowelmall.co.kr' and the phone number '대표번호 02) 755-1091'.

데스크 칼럼

패션산업 키우려면 여성후보에 투표하라?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자본시장1부 차장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끝으로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배수경 국제팀장

당시 클린턴의 연설 장면에는 거의 모든 미국민의 시선이 고정돼 있었을 거다. 연설 내용만큼이나 눈길을 끈 게 순백의 바지 정장으로 무대에 오른 클린턴의 의상이었다....

살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윈투어는 1998년 12월호 표지에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클린턴을 정계 관계자로서 처음으로 게재했다.

알고 보면 클린턴도 상당한 '패션 피플'이다. 영부인 시절이나 아칸소 주지사 부인 시절에는 오스카 드라 렌타의 드레스를 즐겨 입다가 국무장관 시절부터는 줄곧 바지 정장으로 '강한 여성'을 어필해왔다....

고용 창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명품 옷이 웬 말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여성 리더와 패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여성 리더의 의상은 패션 산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 대표적인 예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여사다....

한 멋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신임 총리도 미셸 여사에 버금가는 패션계 뮤즈다. 메이 총리는 취임식 날 영국 디자이너 아만다 윌킨슨의 블랙과 노란 옐로가 조화를 이룬 드레스, 여기에 역시 영국 브랜드인 러셀 앤 브루리의 하이힐을 신었다....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이나 주요 정치인의 패션은 그들 나라의 패션 산업을 홍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급 패션 산업을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그렇다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기보다는 여성 후보에 투표하는 게 진리다.

자본시장에도 만연한 사대주의

얼마 전 미국 뉴욕의 유명 버거 체인점 '셰이크셰크(Shake Shack)이 한국에 공식 1호 매장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일명 '썹썹버거'로 통하는 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매장 오픈 전날 밤부터 1500여 명이 줄을 서서 하루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특히 이날 기온이 울 들어 가장 뜨거운 섭씨 34.1도를 기록했음에도 매장 앞은 오픈 전날부터 '썹썹버거'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맞보려는 듯했다.

뉴욕의 삶을 동경해서일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고 뒤편에서 기본 2-3시간을 기다렸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는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번 '썹썹버거'가 아니라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은 신형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광화문 KT 등 통신사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소비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청바지 한 벌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해외 브랜드가 중저가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을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하자 노숙을 하며 줄을 서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주체성을 잃어 문화 사대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본 사대주의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외국자본이 코스닥 상장사에 들어왔다 하면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가치의 본질보다는 그저 외

국 자본이 들어오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듯하다.

실제 올 3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A기업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주가가 7배 이상 급등했다. 2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1만4000원까지 올라선 것이다. 또 다른 기업 역시 지난해 중국 자금 유치 소식에 3배가량 주가가 점프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어떤 기업은 해외 자본 철수로 인해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봐야 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6년 시가총액 6조6000억 원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이제 205조 원(6월 말 기준) 규모로 성장했다. 신규 중·소형주 상장기업 수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에 이어 글로벌 2위에 올랐으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나스닥(2015년 기준 7조9024억 달러), 차이넥스트(8387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661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 자본 유치가 휘둘릴 만한 할 그런 시장이 아니다. 건전한 투자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시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ssj@

이동철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근로자 임금체불과 법률구조

선박가공 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 80여 명이 임금체불 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왔다. 전체 피해액만 3억 6000만 원. 그러나 회사 사장은 남아 있던 재산을 이미 빼돌려 놓았고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었다. 소설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은행과 사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흠여져버린 재산을 되돌려 놓았고 마침내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받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

법률구조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창립 당시 7개에 불과하던 공단 사무

소는 이제 전국 13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한 해 평균 150만 건의 법률 상담과 16만 건의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분야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제 사정이 악화될수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12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이들을 위해 7만여 건의 소송을 수행하며 국민의 법률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내년 6월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 후견인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법률 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엘리 정치경제부/ellee@
세금감면 받으려 둘째 낳을까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논지는 명료하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항상 앞지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불평등 문제를 자본에 대한 누진 구조와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2030년 2.0%, 2050년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후 2100년까지 1%를 넘어설지 못한다. 이는 합계출산율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여성과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이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불과 50년 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역삼각형 구조가 된다. 젊은 세대의 세금으로 고령 세대의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가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다.

정부는 이런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니면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30만 원 출산 세액 공제를, 둘째 출산 시 50만 원, 셋째 출산 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애 낳아 키우는 데 드는 돈이 얼마인데 세금 감면 받겠다고 애를 낳을까. 이런 정책은 고소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이 출산 장려인지, 고소득자 세제 혜택의 가짓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비과세는 당초 2016년 말까치였지만 2년 더 연장됐다. 저성장·양극화 현상을 보는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본사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8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l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우리말 알아라! 우리말 마아? 우리말 짝?
공주영 지음 | 178x240mm | 11,200원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교 국어 실력 평생 간다!
이번 여름방학, 포켓몬 잡으러 go? 내 아이 어휘력 잡으러 go, go!
1~4학년 교과서 수록 단어 포함!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말!
교과서 수록 단어를 포함한 우리말 160여 개 풀이
반복 학습을 돕는 <은솔이가 내는 썩썩 우리말 퀴즈>
자주 써서 오래 기억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써 봐요>
우리말 배우러 가 볼까?



잔디로

미끄러지지 않는 접지력!  
BSR 멀티 스파이크 아웃솔!



2016  
NEW

도심 속 아웃도어 - 세븐데이즈

# 천연가죽 릿지 트레킹화!

천연가죽 갑피, 논슬립 아웃솔, 천연가죽 라텍스 인솔 사용.

할인가격: ₩196,000원 **30%OFF** ▶ ₩137,000원

[남녀공용] 릿지 트레킹화 세븐데이즈 TW 4511-05 / 레드 / 230~275mm



[남녀공용] 릿지 트레킹화 세븐데이즈  
TU 4511-04 / 진보라 / 230~275mm



[여성용] 릿지 트레킹화 세븐데이즈  
TW 4511-06 / 핑크 / 230~250mm



[남녀공용] 릿지 트레킹화 세븐데이즈  
TW 4511-09 / 그레이 / 230~275mm



[남녀공용] 릿지 트레킹화 세븐데이즈  
TU 4511-07 / 카키 / 230~275mm



[남녀공용] 릿지 트레킹화 세븐데이즈  
TU 4511-02 / 브라운 / 230~275mm



[남녀공용] 릿지 트레킹화 세븐데이즈  
TU 4511-08 / 네이비 / 230~275mm

협력·상장 : 경영 新무기, 다들 기다린다

요동치는 게임사 지배구조

최근 게임업계가 크게 요동치면서 지배구조가 흔들렸다. 전체적인 트렌드는 업체 간 협력관계를 통해 우호 지분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가하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처분하고 신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떠오르는 게임산업 강자인 중국에 지분을 넘기며 글로벌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일본법인 등기이사직 사퇴이다. 김 대표는 진경준 감사장과 뇌물수수 혐의에 책임을 지고 사과문을 공개하며 등기이사직을 내려놨다. 아직 NXC 대표직 사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 1위 업체의 오너 리스크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파급력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넥슨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엔씨소프트의 지배구조는 안정화에 접어들어 보인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2대주주에 올라있지만, 실질적인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넷마블게임스와 주식 맞교환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르면 연내 상장을 앞두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한창이다. 방준혁의 장과 CJ E&M, 중국 텐센트가 지분을 크게 3등분해 갖고 있으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엔씨소프트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보유 지분을 경영권에 활용하지는 않고 있어, 과거 넥슨과 엔씨소프트와 같은 경영권 분쟁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웹젠은 최근 갖고 있던 NHN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을 중국 아우팜에 넘겼다. 특히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의정직을 사퇴한 것도 하나의 이슈다. 아직 최대주주로 남아있지만 경영권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김태영 대표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 이사회 의장이 자녀들의 지분 매입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본지에서는 게임업체들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각 회사를 대표하는 수장들의 주식 가치에 대해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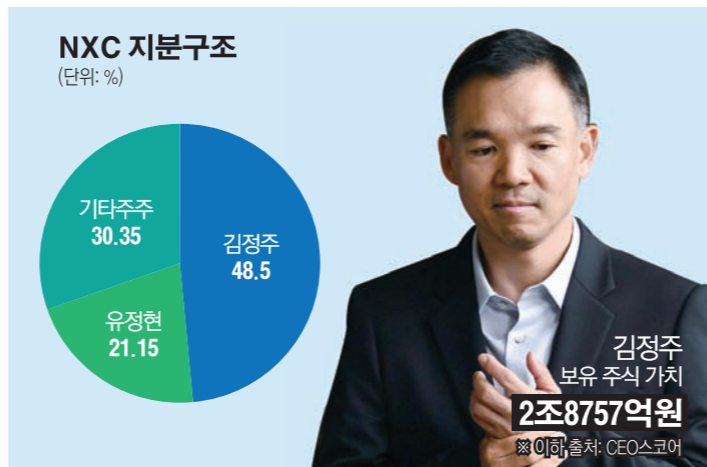
조성준 기자 tiatio@



NEXON 넥슨

김정주 NXC 지분 48% 보유  
총수 일가 지분 70%로 막강

'진경준 파문' 등기이사직 사퇴...지배구조 변화 촉각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은 출시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PC방 점유율 톱10에 자리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국내 게임업체 1위의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넥슨이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액 1조8086억 원가량을 벌어들이며 '2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넥슨은 수직 피라미드형 지배구조 관계를 갖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지주사인 NXC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에는 넥슨일본법인이 위치해 있다. NXC는 넥슨일본법인의 지분 38.61%를 보유하고 있다.

넥슨일본법인의 아래에는 국내법인인 넥스코리아 외에도 넥슨아메리카, 넥슨유럽, 넥슨M이 위치해 있다. 넥슨M은 글로벌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모바일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법인이다. 네곳 모두 넥슨일본법인이 지분 100%씩을 보유하고 있다.

넥스코리아는 국내외에 다양한 자회사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오플과 엔도어즈, 넥스네트웍스, 넥스타이완은 각각 지분 100%씩을 넥스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 서든어택의 개발 자회사인 넥스지티의 지분은 63.16%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거대한 넥슨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NXC의 지분 48.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 역시 지분 21.15%를 보유하고 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 69.65%에 달한다. NXC가 넥슨 해외법인을 100% 보유하고 있고 김 대표 일가가 NXC의 지분 70%가량을 확보해 사실상 해외법인들은 김 대표 일가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굳건한 지배구조 체계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김 대표가 지난달 진경준 감사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책임을 지고 넥슨일본법인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이다. 넥슨일본법인은 전문경영인인 오웬 마호니 대표와 함께 김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앞서 김정주 대표는 지난달 29일 진경준 감사장에게 자사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대표는 넥스코리아 등기이사직은 맡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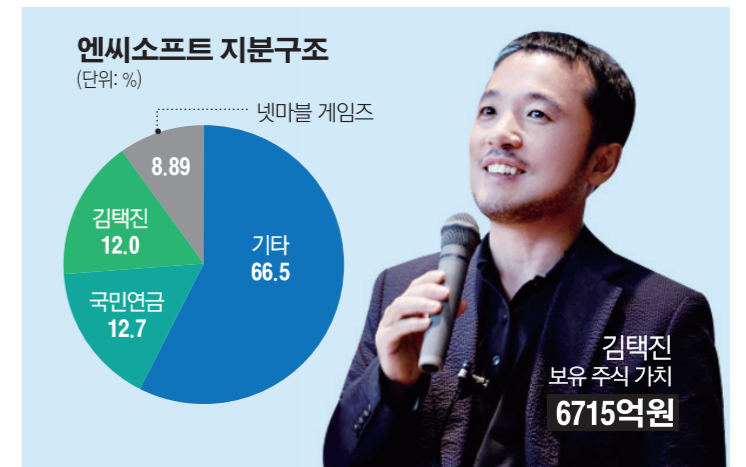
하지만 김 대표의 NXC 대표 사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넥슨 관계자는 "등기이사직 사퇴는 결정됐지만 비상 경영체제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며 "지주회사인 NXC 대표 사임 여부를 비롯해 지배구조 변동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NCSoft 엔씨소프트

넥슨과 결별 다시 김택진 체제  
웹툰·드론 등 투자 본격 나서

김대표 지분 12%... 넷마블에 주식 매각 우호관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지난해 말 3년간 지속된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을 마치고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지만, 경영권이 없어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김 대표가 하고 있다.

올해 1월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는 김 대표와 9인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12.7%(277만6339주)를 보유하고 김택진 대표가 보유한 12.0%보다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넷마블 게임즈는 8.89%(195만주)를 보유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지만 사실상 엔씨소프트는 김 대표의 책임경영 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 10월 최대주주였던 넥슨이 엔씨 지분 15.08%(330만6897주) 전량을 매각하면서 김 대표의 경영권이 확고해졌다.

넥슨의 지분 매각 결정으로 3년간 지속된 넥슨과 엔씨와의 경영권 분쟁도 막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 2012년 6월 미국 게임회사인 일렉트로닉 아트스(Electronic Arts)를 인수하기 위해 엔씨 지분 14.6%(8045억 원)을 인수했다. 당시 넥슨은 엔씨의 최대주주에 올라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EA 인수가 불발되자 엔씨 주식이 14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김정주 넥슨 회장은 전략을 바꿨다. 김 회장은 엔씨 주식 0.4%를 116억 원에 매입해 전체 지분 15%를 넘어서며 최대주주에 오른다. 지분 추가 매입 목적은 '경영참여'였다.

결국 엔씨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양사는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다. 넥슨은 엔씨의 자사주를 매각할 것과 부진한 모바일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며 엔씨를 압박했다. 이에 엔씨는 지난 2월 넷마블에 지분 8.93%를 3900억 원에 매각하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그러자 엔씨의 최대주주로서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한 넥슨은 올 초부터 엔씨 지분을 팔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20일 엔씨 지분에서 넥슨이 완전히 손을 뗐다.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김 대표는 최근 웹툰, 드론에 투자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 웹소설 기획·제작사 알에스미디에 20억 원을 투자, 2대 주주(지분 24%)에 올랐다. 1월에는 드론 제조회사 유비파이에 48억 원을 투자해 지분 30%를 확보했다. 2014년 이후 2년여 동안 엔씨소프트는 이처럼 드론 제조사, 전자결제업체, 웹툰, 웹소설 업체 등에 600억 원을 투자했다.

엔씨소프트는 또 AI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비파이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연구소 AI랩과 협력해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근 기자 nova@

www.iytour.kr

맑고푸른 백두산 자락에 올 여름  
**완다 럭셔리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백두산 완다그룹 리조트**

- ▶ 완다그룹이 200억 원(약 3조 5천억 원) 투자한 럭셔리 복합 리조트
- ▶ 백두산 서파, 북위 41도의 중국 길림성 백두산 내지에 위치
- ▶ 파크하얏트, 웨스틴, 웨라톤 등 3500개의 객실 운영
- ▶ 완다 타운 - 대극장, 워터파크, 쇼룸센터, 60여개의 식당가 운영

▶ 웨라톤 호텔 전경 ▶ 파크하얏트 호텔 전경 ▶ 이비스 호텔 전경

**특징**

- ★ 54홀 명품코스
- ★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18홀 (백화코스)
- ★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가 디자인한 36홀 (송곡코스)
- ★ 최적의 날씨 여름 평균기온 17도~25도
- ★ 지하 2700m에서 뿜어 올린 백두산 천연온천

**상품구성 : 매일출발 (이비스호텔 기준)**

인천 → 장춘	아시아나	3박4일	₩1,390,000
		4박5일	₩1,650,000
인천 → 연태 → 장백산공항	동방항공	3박4일	₩1,590,000

\* 상기 요금은 7~8월 성수기 기준 요금입니다.

포함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조식, 송영비, 그린리, 캐디피, 전동카  
 불포함 : 중·석식, 캐디팁, 중국비자  
 옵션 : 백두산서파관광(11만원), 천지장백산쇼공원(100만원), 온천(1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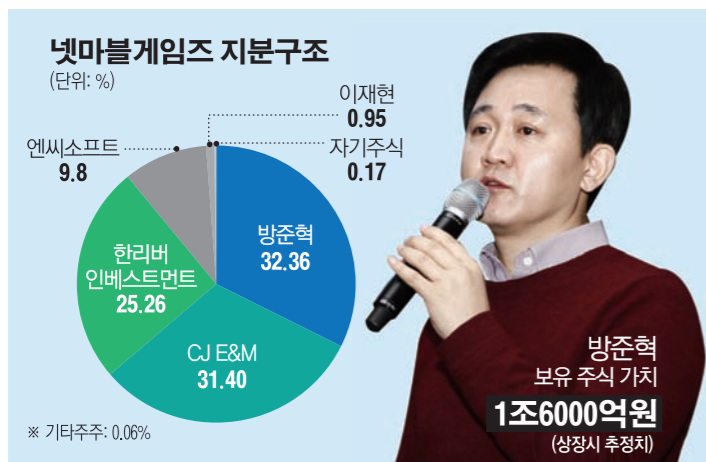
■ 협력사 | HUMAN'S COMPANY ASIANA AIRLINES 中國東方航空 CHINA EASTERN

■ 판매주관사 | IY Tour 02-588-8820

netmarble Games **넷마블게임즈**

# 32% 보유 방준혁 체제 굳건 3대주주 中 텐센트도 영향력

엔씨소프트와 주식 맞교환 협력... 연내 상장 앞뒤



모바일 게임으로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성공한 넷마블게임즈가 이르면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다. IT업계에서 올해 남아 있는 IPO 후보 중 단연 대어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최대 10조 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넷마블게임즈의 중심은 방준혁 의장이다. 그가 2000년 만든 온라인 게임포털 '넷마블'이 현재의 전신이다. 넷마블게임즈는 현재 국내외 해외에 38개기타의 관계사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 게임업체로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해 넷마블게임즈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준혁 의장은 지분 32.3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그가 최대주주에 오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0년 넷마블 설립 후 2003년 상장기업인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같은 해 5월 모회사인 플래너스의 지분을 흡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당시 업계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는 표현을 활용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넷마블이 CJ그룹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800억 원에 달하는 주식부호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던 중 2006년 건강상의 이유로 방 의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5년 뒤인 2011년 CJ E&M 총괄상임고문으로 업계에 복귀했다.

2014년에는 CJ E&M이 CJ넷마블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인 CJ게임즈와 통합하며 CJ넷마블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때부터 방 의장은 CJ넷마블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며 해외 투자와 경영 전반을 담당하게 됐다. 이후 10월에는 CJ넷마블의 사명을 넷마블게임즈로 변경하고 방 의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방 의장에 이은 2대 주주는 CJ E&M으로 31.4%를 보유하고 있고 뒤이어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인 한리버인베스트먼트가 25.26%를 보유하고 있다. 텐센트는 2014년 넷마블게임즈에 5억 달러가량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텐센트가 경영권 전반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넷마블게임즈의 3대 주주에 올라 국내 게임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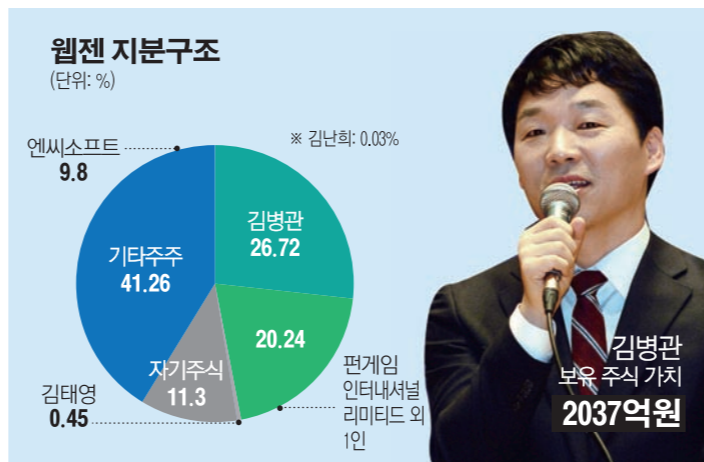
이 외에도 지난해 2월에는 엔씨소프트와 주식 맞교환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넷마블의 지분 9.8%를 취득하며 4대 주주에 올라 있다. 현재 양사는 리니지의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에 협력하며 3분기 중에 그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넷마블게임즈의 지분 0.95%를 보유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WEBZEN **웹젠**

# 국회 입성 김병관 파워는 여전 中 '아워팜' 한달새 2대주주로

(20.24% 보유)

주식 평가액 2000억 김병관 전 의장 경영서 손떼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으로 잘 알려진 웹젠은 최근 대규모 지분매각을 진행하며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웹젠은 지난달 4일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24%(67만 5143주)를 중국 게임업체 '펀게임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에 전량 매각했다. 펀게임은 중국 게임사인 '아워팜'이 이번 거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다. 특히 아워팜은 또 다른 자회사인 '펀게임 HK 리미티드'를 통해 웹젠 지분 1%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아워팜이 NHN엔터로부터 넘겨받은 19.24%의 지분을 합치면 총 20.24%의 지분을 보유하며 2대주주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워팜은 웹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아워팜은 웹젠의 대표 게임 '뮤 오리진'을 개발한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을 인수했다. 뮤 오리진은 국내와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거두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워팜이 웹젠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2대 주주에 올라 있어도 경영권 분쟁 등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웹젠의 최대주주는 김병관 전 이사회 의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라 있다. 김 의원은 26.72%를 보유해 주식 평가액은 약 2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20대 총선 후보자 중 신고재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당선돼 정계에 진출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게임과 관련된 상임위에 속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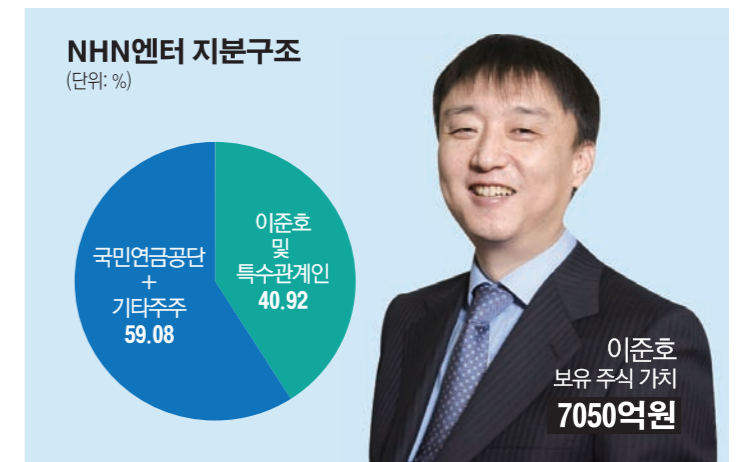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김 의원은 게임과 관련이 없는 산업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위원회는 벤처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최대주주 자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지난 5월 사퇴한 상태다. 웹젠과 관련된 기업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의원직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웹젠의 경영은 김태영 대표가 전담하고 김 의원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김태영 대표는 현재 웹젠 주식 0.4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내이사인 김난희 웹젠 경영전략본부장이 0.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10.29%, 기타 주주들의 지분은 43.27%다. 조성준 기자 tiatio@

ENTERTAINMENT **NHN엔터테인먼트**

# 자녀 지분까지 늘리는 이준호 오너중심 지배구조 강화 집중

특수관계인 29명 포함 총수일가 지분을 40.92%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늘리면서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엔 두 자녀들의 지분까지 대거 확대시키며,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NHN엔터테인먼트 주식 337만8305주를 보유, 지분을 17.27%로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있다. 이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제이엘씨를 포함한 총 29명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까지 합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40.92%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분기보고서 발표 당시보다 약 6% 늘어난 수치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기타 주주들이 합쳐 59.08%의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이 회장의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자녀인 수민·수린 남매는 지난달 22일에 각각 14만 주씩 총 28만 주를 장내매수했다. 두 남매의 NHN엔터테인먼트 지분율도 각각 2.02%, 1.85%가 됐다.

수민·수린 남매는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NHN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두 남매가 매수한 주식은 각각 40만 주, 36만 주에 달한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26억 원 규모다.

업계에선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의 잇따른 지분 매입을 회사 지배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3년 NHN(현 네이버)과 기업분할된 역사를 갖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는 당시만 해도 이 회장의 지분율이 3~4%에 불과했다. 당시 최대주주는 이해진 의장이 이끄는 네이버였다. 2013년 10월 네이버가 보유했던 9.54%의 지분을 이 회장에게 전량 매각하면서 이 두 회사는 '각자도생'에 나서게 됐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지배구조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최근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매입을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이 흥행을 거두고 간편결제서비스 '페이코'도 호응을 받고 있는 영향이 크다.

증권업계에서도 NHN엔터테인먼트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86억 원, 12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로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 “엘리트들 창업전선 나서야 나라가 발전”

**벤처 사이트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거침없이 붓펜을 휘두르니 한자로 가득한 ‘명심보감 천명편’의 글귀가 금세 완성됐다. 명심보감에서부터 논어까지 명서들의 글귀가 모두 쓰이기까지 붓 끝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학교에 있을 줄 알았어요.” 붓펜을 놓고 몇 째든 듯 웃음을 지어 보이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벤처 1호’인 SNU프리시전의 창업자이자, 2기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인 박희재 서울대 교수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만 같은 인상이지만, 최근 청년취업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에 대해 국내에서 고민이 가장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7월 마지막 주 서울 광화문 인근 청년희망재단 사옥에서 만난 박 이사장이 꺼낸 첫 화두도 청년 일자리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년희망재단은 국민 기부와 참여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펼치는 민간재단이다. 최근까지 11만 명이 합류해 약 14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5월 황철주 주성연지니어링 회장에 이어 최근 2기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다.

박 이사장은 향후 청년희망재단의 방향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뜻을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간 대학과 기업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벤처1호’ SNU프리시전 창업  
지난 5월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에 취임  
교수-기업인 경험 살려 청년 채용 모색  
“현장서 답 찾아야” 산학협력 진행 중  
“안정적인 직업에 몰두 안타까운 현실  
도전하는 청년이 건강한 사회 이끈다”**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박 이사장의 설명이다. 현장 수요에 눈높이를 맞추 수 있어야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현장 수요에 눈높이를 맞추고, 이것들이 현장에서 호응을 받게 되면 정부로까지 확산돼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박 이사장이 새다른 고민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가 가진 다양한 배경이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수에서 벤처기업인으로 도전을 택한 것도 그렇지만, 그 과정도 남달랐기 때문이다. 그가 창업한 반도체-LCD검사장비 업체 SNU프리시전은 서울대 벤처 1호로도 유명하다.

박 이사장은 “조용히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



실제 박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자신의 회사인 SNU프리시전에 채용할 청년 인력을 뽑고 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채용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며 “이보다 더 좋은 예국은 없다고 생각해 나의 경험을 주변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답하며 말했다.

박 이사장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일부 취입이 어려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을 통해 인력 수요가 있는 일부 업종 업무를 다시 교육시켜 채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대학들과 협력관 되면, 향후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해 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시도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생각

다가 1998년 ‘내가 가진 기술로 1달러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자본금 5000만 원을 들고 대학 안에서 창업 시작했지만, 당시엔 교수의 회사 설립은 불법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그는 총리실, 교육부, 국회 등을 뛰어다니며 노려간 끝에 벤처특별법 한 조항에 ‘대학에 교수, 연구원이 창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고,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SNU프리시전 본사에는 아직도 박 이사장이 첫 수출로 받아들인 1달러가 액자로 걸려 있다. ‘기술보국(技術報國)’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에서다. 박 이사장은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5000개 정도만 있다면 성장,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이런 사례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게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성장, 채용, 창업 등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업가정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에 뛰어드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최근까지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적인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을 맡았던 만큼, 공무원 조직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는 그는.

그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도 기업가정신이 낮는데, 엘리트일수록 도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엘리트가 도전해야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엘리트들이 창업하고, 경영하고, 채용해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창업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 많아 아무 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소위 말하는 상위 1%라는 엘리트들이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 찾기에 매달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이사장은 대학 교육과 기업 현장 간의 괴리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평소 기업들과 스킨십을 자주 갖는다”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해 해당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 김기자가 써보니

휴롬 ‘휴롬알파’

### 과일·채소 쓱쓱 썰어 넣으니 쫄르륵~ ‘이영애 주스’ 완성 곰손충각, 세척은 ‘엄마찬스’

한 가지 제품군으로 2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강한 중소기업이 있다. 초기엔 ‘이영애 원액기’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이젠 단순히 제품력만으로 중국시장까지 호령하고 있는 휴롬이다. 과일과 채소 등을 갈지 않고 착즙시켜 원액만 주스로 즐길 수 있어 웰빙족과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엔 자사 원액기를 통해 만든 주스까지 직접 유통 판매하며 사업 영역도 확장 중이다.

최근 휴롬의 신제품인 ‘휴롬 알파’와 처음으로 조우했다. 오랜만에 설명서를 보며 무언가를 조립하



입자 구멍이 큰 스무디망, 식감을 살려 주스를 마시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망이다.

### 갈지 않고 착즙한 원액주스... 웰빙족에 인기 제품력 하나로 2000억 매출...중시장 호령

는 쾌감이 있어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다. “이것만 있으면 이영애 누나가 말하는 웰빙주스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지?” 혼자 실실거리며 조립하다 보니 휴롬 알파가 어느덧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주스를 만드려면 재료부터 준비해야 하는 법.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과일칼로 토마토, 당근을 자르기 시작했다. “단순하게 과일만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평소엔 안 한다 보니 이것도 쉽지 않다. 드디어 삐쪽 솟아오른 투입구에 과일을 넣고, 전원을 켰다. ‘우웅-’ 생각보다 작은 소리에 감탄했다. 그간 시끄러운 믹서보다는 확실히 조용하다.

과일을 넣다 보니 잠시 후 한쪽의 배출구로부터 원액. 다른 한쪽 배출구엔 찌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꽤 많은 수의 과일을 넣었는데도 채워진 주스 양은 많지 않았다. 원액기이다 보니 믹서와 달리 재료 양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성된 주스를 마셔봤다. “응? 그냥 믹서로 간 주스랑 비슷한데?” 이상했다. 입 안에 과일 입자들이 씹혔다. 생각했던 원액주스가 아니었다.

옆에 있던 남동생이 한마디 거들었다. “아까 보니 ‘스무디망’을 쓰던데? 미세망 쓰면 원액 그대로 나올 걸?” 설명서에 집중하지 않았던 탓이다. 장착한 망을 보니 입자 구멍이 큰 스무디망이었다. 원액주스 외에 스무디처럼 주스를 즐기고 싶을 때 장착하는 도구다. 원액 그대로를 즐기고 싶어 다시 미세망을 장착하고 과일을 투입했다. ‘쫄르륵-’ 기대했던 원액주스가 나왔다. 믹서로 간 주스와는 다른 깔끔한 맛.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단순에 사과, 토마토, 당근을 조합한 원액주스를 두 잔 ‘원샷’을 하고 나니 눈앞에 보이는 건 설거지거리뿐. 주스를 마신 것까지는 좋았지만, 세척이 문제다. 주변에서 원액기 세척이 힘들어서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척을 해보니 일부 이해가 갔다. 기계 내부가 복잡한 만큼, 집안일에 무지한 30대 노총각이 세척하기엔 쉽지 않았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마디를 했다. “기계 잘못이 아니라, 집안일을 안 한 내 손이 잘못이네.”

김정유 기자 thec98@



## 손안의 복덕방 ‘O2O 부동산 중개앱’

### 맞수열전

## 네이버 쫄게 만든 ‘직방’ VS 특화사업 새 길 뚫는 ‘다방’

한쪽에서는 배우 송승헌이 노란색 배경 속에서 부동산 중개자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다른 한쪽에선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헤리가 깜찍한 표정으로 “이 방, 저 방 다 있다”고 소리친다. 국내 대표 부동산 중개 온·오프라인연계(O2O) 스타트업인 직방과 다방의 광고 속 풍경이다.

관련 업계에선 연간 2조 원 규모의 부동산 정보시장 가운데 10%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O2O업체들이 늘면서 이 시장도 점차 규모를 키워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처음으로 개척하며 두각을 보였던 직방, 무서운 후발주자로 뒤쫓고 있는 다방은 각자의 특화전략으로 장기적인 성장 발판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 부동산 중개 ‘NO’... 네이버 잡은 ‘직방’= 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통계업체 앱랭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부동산 앱 시장 점유율(월 이용자 수 기준) 1위는 직방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2위는 네이버 부동산(20%), 3위는 다방(13%)이었다. 직방은 기존 부동산 정보 시장의 강자였던

수도권 아파트 맞춤형 정보제공 시장점유율 61%... ‘부동의 1위’ 종합주거정보 플랫폼 도약 목표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114와 정면 경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직방 관계자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 앱에서 더 나아가 ‘종합 주거 정보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방은 기존 원룸 위주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최근 아파트 단지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파트는 국내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만큼, 이용자들의 ‘생활권’에 대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이다. 직방은 현재 200세대 이상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아파트 상세 정보를 제공 중이다. 네이버 부동산보다 다양하고,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플랫폼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포부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현재 직원들이 부산,

2년 만에 누적매물 50만 개 돌파 월세 자동결제 ‘다방페이’ 개발 무료 이사견적 서비스 등 차별화

제주도 등에 파견 나가 현지 아파트 단지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내 5대 광역시를 우선으로 전국 1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올해 직방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결제·이사 서비스까지... 영역 확장 중인 ‘다방’= 다방은 직방에 이어 국내 부동산 중개 앱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체다. 서비스 2년 여 만에 취급 매물이 누적 50만 개를 돌파했고, 월간 이용자 수도 2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다방이 선택한 전략은 사업영역 확장이다. 다방이 운영 중인 ‘무료 이사 견적 시스템’은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 성사 건수 2700여 건을 기록했다. 이사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앱 내에서 무료 이사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골자다. 직방에는 없는 차별된 서비스다.

특히, 최근에는 월세 자동 결제시스템 ‘다방페이’를 개발, 직방과의 확실한 차별화에 나섰다. 다방페이는 임대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월세가 현금으로만 거래됐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앱을 이용하면서 월세 결제는 물론 세액공제까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다방은 다방페이를 이달 출시할 계획이다.

다방 관계자는 “세입자들을 좀 더 편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업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다방페이에 집중해 기업형 임대인들에게 우선 적용한 뒤, 대상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유 기자 thec98@

HOT 아이템 풀무원 '찬마루 삼계탕·반계탕'

# 집에서 만든 듯 진한 맛... 한 달 새 10만개

누린내 없는 육질에 쫄깃·탱탱한 질감

국내산 수삼·풍성한 부재료 '영양 굿'

집에서 대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여름 보양식까지 간편식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유통업체와 식품업체들이 앞다퉈 즉석 삼계탕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이 선보인 찬마루 삼계탕, 반계탕의 인기가 뜨겁다.



풀무원에 따르면 찬마루 삼계탕은 출시 한 달 만에 10만 개가 팔려 초도 생산 물량이 완판됐다. 이 같은 대박 인기 비결에 대해 회사 측은 맛과 건강을 꼽았다. 찬마루 삼계탕은 마치 집에서 만든 듯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 낸 제품으로, 닭고기의 누린내를 잡기 위해 청정수로 3회 이상 세척해 핏물을 완전히 제거했다. 찬물과 뜨거운 물로 닭을 수차례 세척해 육질이 쫄깃하고 탱탱한 것이 특징이다. 닭을 한 번 데쳐 내어 피하지방층의 기름을 없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또한 14시간 이상 푹 우려낸 육수에 고기를 넣고 한 번

이선에 기자 isa@

리뷰 아웃백 여름 신메뉴 '더 레드 스테이크'

# 더위 날리는 화끈한 불 맛으로 스테미나 '업'

점보 새우에 매콤한 스테이크 조화

덥고 습한 무더위와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진다. 몸보신이 필요한데 매번 똑같은 보양식이 지루해 졌다면 불 맛에 스파이시함까지 더해 강렬한 레드 맛으로 완성된 아웃백 여름 신메뉴 '더 레드 스테이크'는 어떨까.



아웃백 '더 레드 스테이크'. 사진제공 아웃백

더 레드 스테이크는 '더 레드 립아이 콤보'와 '더 레드 스트립 콤보' 등 2종으로, 두 가지 메뉴 모두 자연산 레드 슈림프 3마리가 콤보로 구성돼 있다.

더 레드 스테이크는 풍부한 육질의 호주 정정우와 3마리의 점보 레드 슈림프를 스파이시 칠리 오일에 마리네이드해 화이트 그릴로 구워 화끈한 불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압도적인 비주얼의 자연산 레드 슈림프는 해산물의 신선한 풍미를 제공하는데,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인기가 좋다.

육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세트 메뉴로는 시추안 페퍼의 매콤함과 고소한 투움바 소스가 어우러진 '스파이시 투움바 파스타', 풍부한 과일과 담백한 치킨, 퀴노아를 비롯한 각종 슈퍼푸드가 층층이 쌓여 있는 '레인보우 그릴드 치킨 샐러드', 허니의 달콤한 맛과 버터의 고소한 맛을 함께 녹여낸 '허니버터 오지 후라이즈'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파스타는 아웃백의 베스트 셀러인 투움바 파스타에 매운맛과 풍미를 더한 종류로 주문 시 매운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매운맛 마니아들도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이선에 기자 isa@

주목 신상품 애슐리 퀸즈 '디저트 신메뉴 7종'

# 눈·입 사로잡는 '달콤한 유혹'

꿀든벨 메뉴 '퀸즈벨 멜팅초코' 평일 디너·주말 한정수량 제공

'입 속의 작은 사치' 디저트 문화를 향유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에 디저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식사를 비롯 고급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디저트 명소로 주목 받고 있는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월드 고메 뷔페 애슐리 퀸즈는 여름 시즌을 맞아 '퀸즈 리조트 아일랜드' 콘셉트의 디저트 메뉴 7종을 선보였다.



이랜드 애슐리 퀸즈 디저트 신메뉴 '퀸즈벨 멜팅초코'. 사진제공 이랜드 외식사업부

수량으로 제공되는 '꿀든벨 메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초콜릿을 부어 즉석에서 만드는 디저트로, 입 안 가득 유혹적인 달콤한 맛은 물론 재미 있는 볼거리도 선사한다. '꿀든벨 메뉴'는 1시간 간격으로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종을 올려 제공하는 특별한 메뉴다.

이랜드 외식사업부 관계자는 "애슐리 퀸즈는 매 시즌마다 특색 있는 요리를 비롯해 이색 디저트 메뉴를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디저트가 맛있는 명소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며 "이번 시즌에는 고급 디저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야심차게 선보인 여름 디저트 메뉴 7종을 많은 고객들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애슐리의 프리미엄 매장인 애슐리 퀸즈가 이번 시즌에 출시한 디저트 신메뉴 7종은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퀸즈벨 멜팅초코', '컵케이크(민트맛, 레몬트리)', '레몬 치즈무스', '망고 젤라토'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대표 메뉴인 '퀸즈벨 멜팅초코'는 평일 디너와 주말에 한정

타보니 BMW '뉴 740Li x드라이브'

# 가속구간서도 흔들림 없는 질주본능

BMW의 대형 럭셔리 세단 7시리즈가 디젤 모델에 이어 이달부터 가솔린까지 추가하며 새롭게 돌아왔다. BMW '뉴 740Li x드라이브(이하 740Li)' 모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BMW의 플래그십(기업의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 모델이다. 처음으로 도입된 BMW 제스처 컨트롤은 손동작을 감지해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다. 32마력, 제로백 5.2초에 달하는 질주본능에 첨단기술의 혁신을 입힌 섀시다.



것이다.

740Li는 3.0ℓ 직렬 6기통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돼 있다. 최고출력 326마력, 최대토크 45.9kg·m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은 5.2초에 불과하다.

BMW코리아는 주차 시 스마트키를 활용한 무인 원격 주차 시스템인 '리모트 컨트롤 파킹' 시스템을 올해 연말 7시리즈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애초 독일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적용됐지만, 우리나라는 주차수 관련 문제로 인종이 미뤄진 상태다.

최근 740Li를 타고 서울 대치동을 출발해 경기 가평 일대를 경유하는 150km 구간을 시승했다. 시승 구간에는 고속도로와 급경사로 이뤄진 와인딩 코스가 포함돼 차량의 코너링과 가속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가속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으르렁거리는 엔진음이 질주본능의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내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의 시원한 가속감을 느낀다. 그러나 도로 위를 스치듯 부드럽게 달리는 차량 내에서는 풍절음이나 노면음의 구속감을 느낄 수 없다. 시속 100km를 돌파하는 고속에서도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통화 내용까지 들린다. 무엇보다 시속 200km에 이르는 가속 구간에서도 스티어링휠의 진동이나 차체가 흔들리는

최대 326마력·제로백에 5.2초  
시속 100km 달려도 내부 조용  
손동작 감지 '제스처 컨트롤'  
원격 주차 시스템도 곧 적용

불안감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게 BMW 측 설명이다. 마치 가까운 사물들은 빨리 스쳐 지나가고 먼 경치가 안정감 있게 다가오는 고속열차 KTX에 몸을 맡긴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안철우 기자 acw@

# 블랙박스 아무거나 달지 마세요!

브랜드를 보고 선택 하셔야죠!

블랙박스는 역시 -

강소라가 강력 추천하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950 View

*Strong*  
아이나비  
시각은 모든 것의 시작

# 차익실현 매물에... '엠케이트렌드' '원팩' 뚝

<16.75%>

<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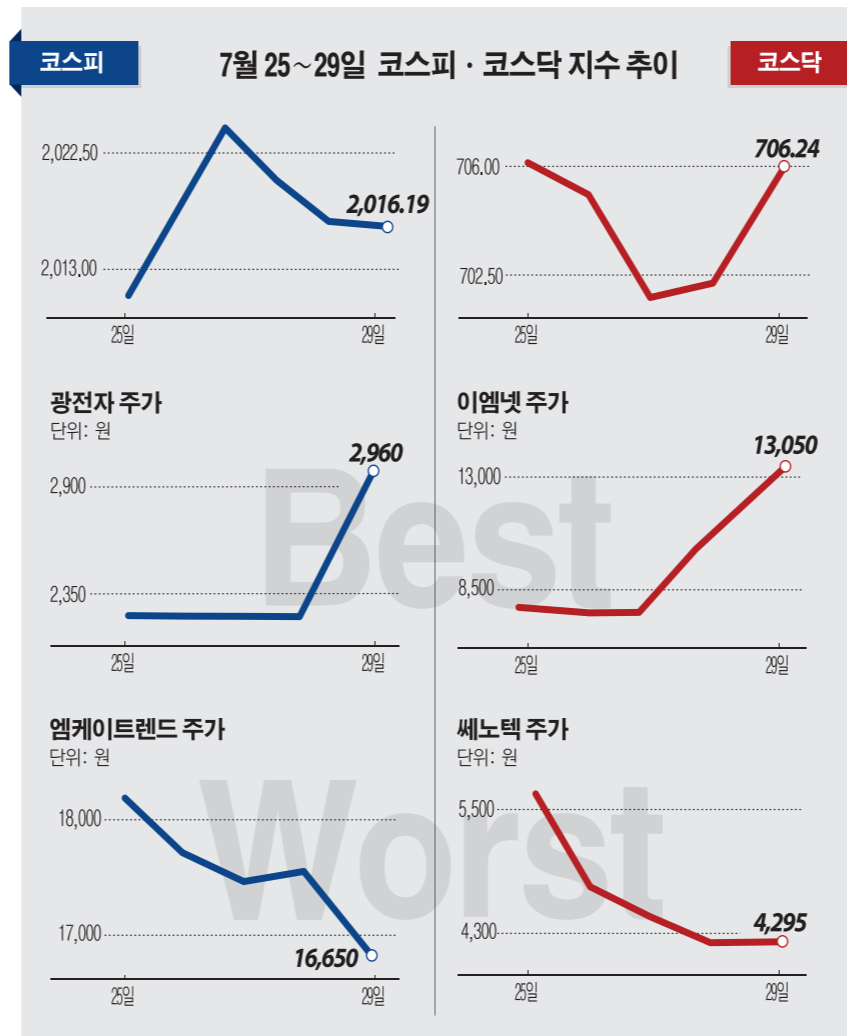
## 베스트&워스트 7월 25~29일

7월 마지막 주(25~29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29%(5.85포인트) 오른 2016.19포인트로 마감했다. 주 초반에는 코스피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현성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간 단위로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1.3포인트(0.18%) 하락한 706.24로 마감했다. 카카오(-1.94%)와 CJ E&M(-2.06%), 코오롱생명과학(-3.14%)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지난주 상승세에 따른 조정국면이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한 주간 1739억 원을, 외국인은 91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1916억 원을 팔았다.

◇한전기술, 호실적에 17.60%↑... '상승 1위' 광전자 포켓몬GO 영향? = 지난 한 주간 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전자장비 제조업체인 광전자였다. 광전자의 주가는 지난 22일 2285원에서 29일 2960원으로 일주일새 29.54% 상승했다. 이는 '포켓몬고(GO)' 열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전자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센서인 비메모리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 주요 공급사로는 난텐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발표 시즌인 만큼 광전자를 제외하면 2분기 좋은 성적표를 받은 기업들이 주가상승률 상위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주가상승률 2위는 지난 22일 2만 6700원에서 29일 3만1400원으로 17.60%

에 14.98%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급등 종목들, 차익실현에 주가 '뚝'... 엠케이트렌드 16.75% 떨어져 = 지난 한 주간 주가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지난주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곳이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전체가 연고점을 찍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종목에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가하락률 1위는 엠케이트렌드였다. 엠케이트렌드의 주가는 일주일간 16.75% 떨어졌다. 엠케이트렌드는 지난 주까지 6거래일간 23% 이상 급등했지만 지난 22일 한세실업과 최대주주 지



## 난텐도에 부품공급 '광전자' 포켓몬고 수혜 상승 1위 2분기 실적 호조 '한전기술' '만도' '현대중' 등 강세 전주 상승세 탄 '덕성' '신세계푸드' 등은 도로 약세

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한 한전기술이었다. 한전기술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9% 증가한 25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또 2분기에 시장기대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도가 17.12%의 상승률을 보였다. 긍정적인 분석이 잇따른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김진우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딱히 흠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전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졌다"며 "1분기부터 시작된 중장기 체질 개선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실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깜짝실적'을 내 놓은 현대중공업이 16.74%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572억 원, 당기순이익은 392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아울러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실적개선 기대감 속

분 40%(506만주)를 119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한 뒤 급락세를 반전했다. 인수 측인 한세실업의 주가도 한 주간 13.12%나 떨어져 하락률 2위에 올랐다. 증권업계는 이번 인수가 두 회사에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돌아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수 정보가 새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엠케이트렌드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15일~22일은 한세실업이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 평가를 진행한 기간이어서 의구심을 더한다. 아울러 △덕성(-12.56%) △신세계푸드(-12.56%) △필룩스(-9.65%) △KR모터스(-9.38%) 등이 지난주에 줄줄이 하락률 순위에 들었다. 이들 모두 최근 실적개선 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

종목명	29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광전자	171.51	2.285	2.960	29.54
한전기술	1,200.11	26.700	31.400	17.60
만도	2,441.77	222.000	260.000	17.12
현대중공업	9,538.00	107.500	125.500	16.74
신세계인터	559.06	68.100	78.300	14.98
삼화전기	40.94	5.520	6.190	12.14
대양금속	59.37	4.300	4.820	12.09
우리금융브레	125.34	6.400	7.150	11.72
대림B&C	192.22	11.100	12.400	11.71
제주은행	167.96	6.800	7.590	11.62

종목명	29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KR모터스	204.05	1.280	1.160	-9.38
삼양홀딩스	1,032.00	133.000	120.500	-9.40
대림씨엔에스	277.56	24.100	21.800	-9.54
필룩스	104.27	4.560	4.120	-9.65
신세계푸드	613.79	176.500	158.500	-10.20
영진약품	1,918.30	12.050	10.800	-10.37
금비	102.00	114.500	102.000	-10.92
덕성	152.88	11.150	9.750	-12.56
한세실업	1,232.00	35.450	30.800	-13.12
엠케이트렌드	210.61	20.000	16.650	-16.75

종목명	29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이엠넷	71.78	8.200	13.050	59.15
아시아경제	225.68	6.050	8.940	47.77
대성파인텍	100.62	12.850	18.850	46.69
테고사이언스	240.69	49.400	65.000	31.58
맥스토크	64.89	3.555	4.650	30.80
에임하이	177.05	5.620	7.330	30.43
CNH	67.33	1.410	1.810	28.37
한프	158.14	11.950	15.300	28.03
이미티스	62.12	6.420	8.100	26.17
아이티센	83.48	14.500	18.100	24.83

종목명	29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아리온	86.11	8.650	7.600	-12.14
바이오로직	73.03	3.035	2.665	-12.19
엑토즈소프트	233.98	23.550	20.650	-12.31
드래곤플라이	137.41	11.200	9.760	-12.86
나노켄텍	56.32	6.170	5.350	-13.29
엠젠플러스	151.23	16.700	14.400	-13.77
셀루메드	372.87	2.505	2.155	-13.97
NEW	354.91	15.500	12.950	-16.45
원팩	86.31	6.150	5.050	-17.89
씨노텍	161.32	6.350	4.295	-32.36

◇상승 1위 이엠넷, 한 주간 59.15%... 무상증자 공시에 2거래일 급등 = 지난 주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미디어업체 이엠넷이었다. 이엠넷의 주가는 지난 22일 8200원에서 29일 1만3050원으로 무려 59.15%나 급등했다. 이엠넷은 지난 27일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한 뒤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다. 상승률 2위는 47.77%의 상승률을 기록한 아시아경제는 팍스넷의 최대주주로 44.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팍스넷은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근 개발을 끝낸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기술이 상용화되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게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주일 새 26.17% 뛰었다. <합병대상' 씨노텍, 한 주간 32.36% 하락... 최근 급등주 차익실현에 우수수 = 코스닥 시장에서 한 주간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세라믹 소재 전문기업 씨노텍이었다. 씨노텍은 일주일 새 32.36%나 하락했다. 씨노텍은 지난 25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미래에셋제4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졸풍 급락세를 보였다. 또 △원팩(-17.89%) △NEW(-16.45%) △셀루메드(-16.45%) △드래곤플라이(-12.86%) △아리온(-12.14%)처럼 코스닥

## '이엠넷' 주당 1주 배정 무상증자 소식에 59% 경증 '아시아경제' 자회사 '팍스넷' 오늘 상장...47% 올라 스팩합병 상장 '씨노텍' 데뷔 직후부터 32% 떨어져


예측에서 경쟁률 75대 1을 기록, 올해 IPO 기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아시아경제에 이어 대성파인텍(46.69%), 테고사이언스(31.58%), 맥스토크(30.80%), 에임하이(30.43%), CNH(28.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테고사이언스는 최근 들어 주름개선 치료제 임상 2상 진행 발표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이어오는 중이다. 임하이의 경우 지난 27일 일본의 소셜게임 개발사 알트플러스와 업무 제휴 소식이 주가상승의 재료가 됐다. 전 세계를 휩쓴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의 영향도 여전했다. 한프의 경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300억 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D) 기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한 주간 28.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지미스 또한 최

지수 전체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전주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실현을 하락률 상위에도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전자부품 제조사 바이오로직도 바이스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한 주간 12.19% 급락했다. 한빛인베스트먼트와 유비쿼스인베스트가 바이오로직 지분을 처분하며 투자를 회수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엑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주가가 12.31% 떨어졌다. 위메이드(11204)는 주식회사 엑토즈소프트가 저작물사용금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엑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제삼자가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러' 저작물을 모바일 게임 등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

나를 다스리고 타인을 움직이는 침묵의 기술

## 말의 과잉시대, 침묵으로 말하라!

# 침묵의 기술



**백마디 말보다 무거운 또 하나의 언어 '침묵' 삶을 지키는 지혜와 절제의 언어, 침묵의 14가지 원칙**

제대로 침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을 닫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입안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침묵을 허물지 말아야 할 인생의 모든 길목에서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은 깊은 숙고와 맑은 혜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그렇기에 옛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을 배우려면 인간에게 다가가야 하지만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깨치려면 신을 따라야 한다."

모두 발신자인 세상, 블로그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각자 미디어인 세계, 말과 글의 과잉시대에, 언제 침묵할지, 어떻게 침묵할지를 가르쳐주는 책, 《조선일보》

현대인들은 소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강박적으로 말과 글을 쏟아낼 것을 요구받고 설화와 필화가 난무한다. 이 책이 전하는 가치는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지혜로운 잠언이다.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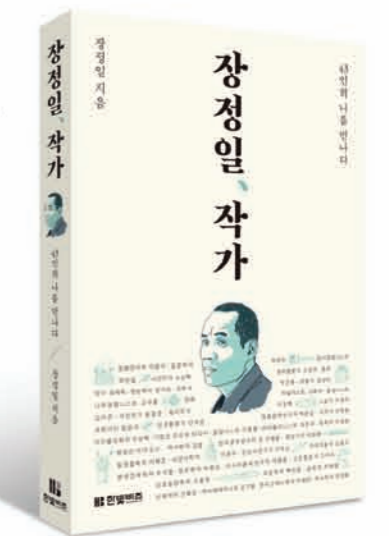
조제프 앙투안 투생 다누아르 지음  
성규수 옮김 | 아르테 | 값 15,000원

문의: 031-955-2100

작가 장정일이 43인의 독讀선생을 모시고 선사하는 서평 문학의 진수

## 장정일, 작가

### 43인의 나를 만나다



**"화제 작가는 NO, 나는 문제의 작가를 찾는다" 생태경제학자 우석훈, 만화가 최규석, 사진작가 노순택... 장정일의 남다른 시선으로 만난 마흔세 명의 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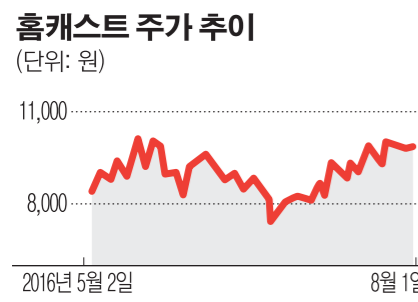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작가들이 있다. 답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이렇게 맞닿게 텍스트를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만드는 이들이다. 작가가 서평가, 장정일이 그런 애서기들의 로망을 실현했다. "진짜 독서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주는 일"이라며 '자신의 기준'으로 선정한 43인의 작가들을 만나 텍스트 너머에 실존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파헤쳤다.

장정일 지음 | 332쪽  
한빛비즈 | 값 15,000원

문의: 02-2128-8773



# 홈캐스트, 황우석 러브콜에 줄기세포 사업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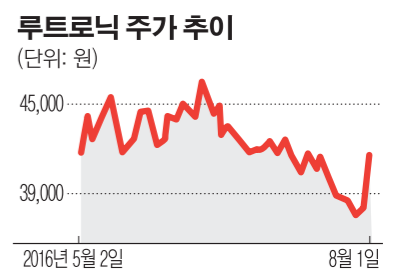
## 황 박사 대표재직 에이치바이온, 홈캐스트 최대주주로 줄기세포 화장품·동물 복제 등 신규사업 추진 가속화

최근 홈캐스트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황우석 박사의 에이치바이온이 지분을 확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셋톱박스 업체인 홈캐스트가 줄기세포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이치바이온은 바이오 신소재 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 업체로써 황우석 박사가 지난해 말 기준 지분 46.8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황우석 박사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인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

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이 지난달 29일 19만3461주를 장내에서 추가매수하여 홈캐스트 주식 보유지분을 늘렸다. 홈캐스트는 지난달 기존 최대주주인 신흥정보통신이 보유 중인 홈캐스트 주식 총 중 100만 주를 시간 외로 외국계기관과 국내 기관 등에 불특정불명도 매도했다. 이에 따라 2대 주주였던 에이치바이온이 자연스럽게 최대주주가 된 상황이다. 또 신흥정보통신은 불특정불명도 매도한 지분 이외의 잔여지분의 보유목적은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이치바이온은 최대주주가 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홈캐스트 주식을 장내 추가매수하여 지분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지분확보에 나섰다. 현재 에이치바이온은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홈캐스트의 지분 총 17%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에이치바이온의 홈캐스트 지분 확보에 대해 향후 홈캐스트의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 사업과 동물복제사업 등 신규사업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홈캐스트는 올해 초 신규사업의 진출을 위해 화장품사업 및 동물복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바 있다.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은 지난 2014년 4월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에 250억 원을,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40억 원을 각각 상호 투자해 줄기세포와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발

판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홈캐스트는 본업인 셋톱박스 사업부문 역시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브라질 리우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방송사업자의 마케팅이 강화됨에 따라 셋톱박스 업황이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홈캐스트가 최근 고부가제품인 HD와 IP하이브리드 제품으로 미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셋톱박스 시장 성장에 실적도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분기 홈캐스트는 매출액 415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5억 원으로 같은 기간 349%나 급증했다. **성시중 기자 ssi@**



## 인와 사업 박차 루트로닉 2분기 영업이익 38억 기록 신제품 출시·작년보다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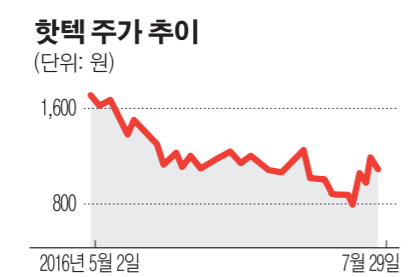
루트로닉은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한 202억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9.48% 증가한 38억200만 원, 당기순이익은 77.94% 증가한 49억6100만 원이다. 회사는 국내의 전반적인 성장과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제시했던 별도 기준 매출액 84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의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필요에 따라 수정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다.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는 “우리는 주주들과의 신뢰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외부에 공표하는 숫자는 시장 상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보수적 입장에서 내놓은 예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사업 중 하나인 안과 분야 알젠(R:GEN)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공유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 공시 돋보기

## 적자탈출 나선 핫텍... 유니온저축은행 인수 총력전

### 계열사 이노그리드 지분 양도 이일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은행인수 무산설도 공식 부인

핫텍이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인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핫텍은 재무구조가 악화하며 9개월 넘게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최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인수작업 완료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핫텍은 계열사인 이노그리드에 대한 소유 지분 전량을 에스엔알코퍼레이션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양도 주식 수는 446만7885주, 양도 금액은 44억 원이다. 양도 예정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회사 측은 “투자자금 회수 및 재무구조 효율개선에 의한 건전성 제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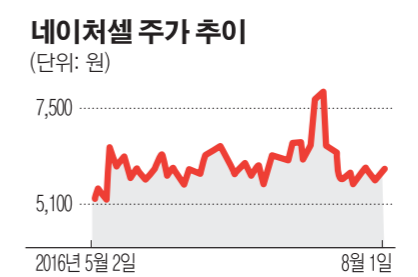
같은 날 핫텍은 박재희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일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는 등 최근 집계한 회사 분위기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핫텍은 지난해 10월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 117만4017주(지분율 45.4%)를 주당 1만221원에 총 120억 원에 양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 후 9개월여 동안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던 탓에 시장에서는 핫텍의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하지만 핫텍은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는데 대해 공식 부인했다. 회사 측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2015년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3자매정 유상증자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결산 보정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유상증자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도 “유상증자 납부 후 해당 지분 인수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대주주 자격심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핫텍은 최근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현재 자본잠식으로 자본총계는 34억 원, 부채총계 214억 원, 자산총계 248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핫텍이 인수하려는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영업이익 5억2938만 원, 당기순이익 8억2522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송영록 기자 syr@**

## 네이처셀, 中 아오구와 공동 연구 줄기세포 화장품 시장 입지 다진다

### 화장품 공급·연구소 개설 등 아토피 치료 분야도 협력키로

네이처셀은 중국 아오구(AOGU) 기업과 화장품사업 분야의 중국시장 유통망 확대와 미용분야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이처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통한 미용 분야 및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치료 분야까지 AOGU기업과 공동 협력,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중국시장 화장품 공급 협력 △중국시장 유통망 확대 및 판로 개척 협력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탈모 예방 및 아토피 치료 프로젝트 공동 추진 △중국 내 피부 클리닉 및 줄기세포 피부미용 연구소 개설 △맛춤형 화장품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네이처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라정찬 기술연구원은 “AOGU기업과 새롭게 인연을 맺



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통한 미용분야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 연구까지 양사가 협력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OGU는 2008년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된 회사로 2012년 중국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마스크팩 선정, 가장 신뢰하는 10대 브랜드 선정 등 중국에서 화장품 업계의 선두 주자다. 연구개발부터 제조 및 판매 전분야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내 대리점 385개와 판매점 약 3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SP 주간동향

## ‘삼익THK, 삼성전자와 로봇개발’ 보도당일 11%↑

7월 넷째 주 본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타프리미엄에서는 종목 돋보기 2건, 공시돋보기 3건 등 5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주가에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기사는 ‘삼익THK,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로봇 개발 완료’였다. 기사 게재 당일 주가는 11.51% 올랐다. 특히 기사 게재 이후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주간 상승률은 5.86%를 기록했다. 기사에 따르면 삼익THK는 삼성전자와 함께 ‘6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상반기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관절 로봇은 부품 조립에서부터 제조 자동화는 물론 인간과의 협력 작업도 가능한 로봇이다. 삼익THK 관계자는 “상반기 6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완료했다”며 “시장성을 가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양산해서 삼성에 납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삼익THK의 6축 다관절 수직 로봇은 6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스마트폰과 가전기기 등 정밀자동화 작업을 요구하는 전자제품 조립에도 유용하다. 특히 이 로봇은 정부가 7대 상생협력

기사작성일	제목	당일 주가동향률	주간 상승률
7월26일	삼익THK,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로봇 개발 완료	11.51%	5.86%
7월25일	오디텍, 글로벌 업체 등에 바이오 센서 납품... "1분기 첫 매출, 향후 증가 전망"	-0.53%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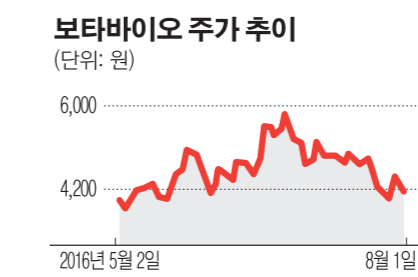
신사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제품조립 및 제조라인용 다관절 로봇 개발’ 사업의 결실로 불리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제어센서 기술과 내구 신뢰성 평가지원을,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실용화 기술 및 장비 지원을 맡았다. 삼익THK는 다관절 로봇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생산라인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잠재적 로봇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올해 ‘굴절 및 변형교정을 위한 복원시스템 의료용 로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업체 BCC리서치는 스마트머신(Smart Machine)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9년 153억 달

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오디텍, 글로벌 업체 등에 바이오 센서 납품 기사 게재 이후 당일 이 회사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주간 상승률로 보면 소폭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등에 바이오 관련 센서를 납품하고 1분기부터 첫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혈당측정기와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들어가는 센서 납품을 통해 첫 매출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집 및 센서모듈 업체인 오디텍은 최근 센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센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인 관계로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이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로 센서 적용을 늘려가는 게 긍정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다. **송영록 기자 syr@**

## 보타바이오 ‘이영애분유’ 판권 계약 보류

### ‘남양모에보’ 제조·유통사 소통 문제

보타바이오가 이영애분유 ‘남양 모에보’ 중국 판매권 확보와 관련해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 NY인터내셔널, 윤원인프라코어, 보타바이오 등 3사 간에 소통이 잘못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보타바이오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28일 발한 ‘보타바이오, 이영애분유 남양 모에보 중국 판매권 확보’ 건은 보타바이오, 윤원인프라코어, NY인터 등 3사 간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보타바이오 실무진의 착오로 잘못 알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타바이오는 전날 ‘모에보’의 중국과 동남아시아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윤원인프라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보타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한 윤원인프라코어가 모에보 제조권을 가진 NY인터내셔널과 협의 없이 보타바이오에 중국 판매권을 넘기려고 하면서 벌어졌다. 윤원인프라코어는 NY인터내



셔널과 유통계약을 맺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NY인터가 보타바이오와 윤원인프라코어의 계약에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타바이오는 “착오를 일으킨 원인은 모에보의 제조권을 가진 NY인터내셔널과 윤원인프라코어 간 유통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윤원인프라코어가 당사과 체결한 유통계약이 NY인터내셔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 발생한 문제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타바이오는 “NY인터내셔널과 윤원인프라코어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 KCI, 중기 첫 ‘RSPO’ 인증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인 KCI가 RSPO(지속 가능한 팜유 라운드 테이블) 인증을 획득했다. KCI는 29일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 환경단체인 ‘RSPO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KCI는 친환경 팜유(Palm Oil)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RSPO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RSPO는 화장품, 식품, 세제의 천연원료인 팜유 생산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국제환경 비영리 단체로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과 사용을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만들었다. 이후 팜유와 관련된 로레알, 유니레버, 까르푸, 울림인터내셔널 등의 글로벌 기업이 RSPO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KCI도 RSPO 인증을 획득했다. KCI는 앞으로 RSPO 인증 제품의 판매로 한층 더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주부 9단의 냉장고 집들이

“우리집 똑똑한 얼음정수기냉장고를 소개합니다”



[얼음 정수기]

### \*얼음 정수기

문 열지않고도 속 시원한 물과 얼음이 차르르!  
여름엔 필수 아이템이죠~



[매직스페이스]

### \*매직스페이스

매직스페이스에 간식을 정리해두면  
가족들이 스스로 꺼내 먹기 편해  
아이와 아빠가 저를 찾지 않아요  
아이 있는 집에 강추!



[레이디퍼스트시스템]

### \*레이디퍼스트시스템

냉장고에서도 완전 수납의 달인 됐잖아요  
버리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UV안심제균+]

### \*UV안심제균+

냉장고 속 냄새는 제거하고  
식중독 유발가능균 99.999% 제거  
이래야 진짜 냉장고죠!

\* 실험 결과로 냄새를 시 제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얼음정수기냉장고 **LG DIOS**